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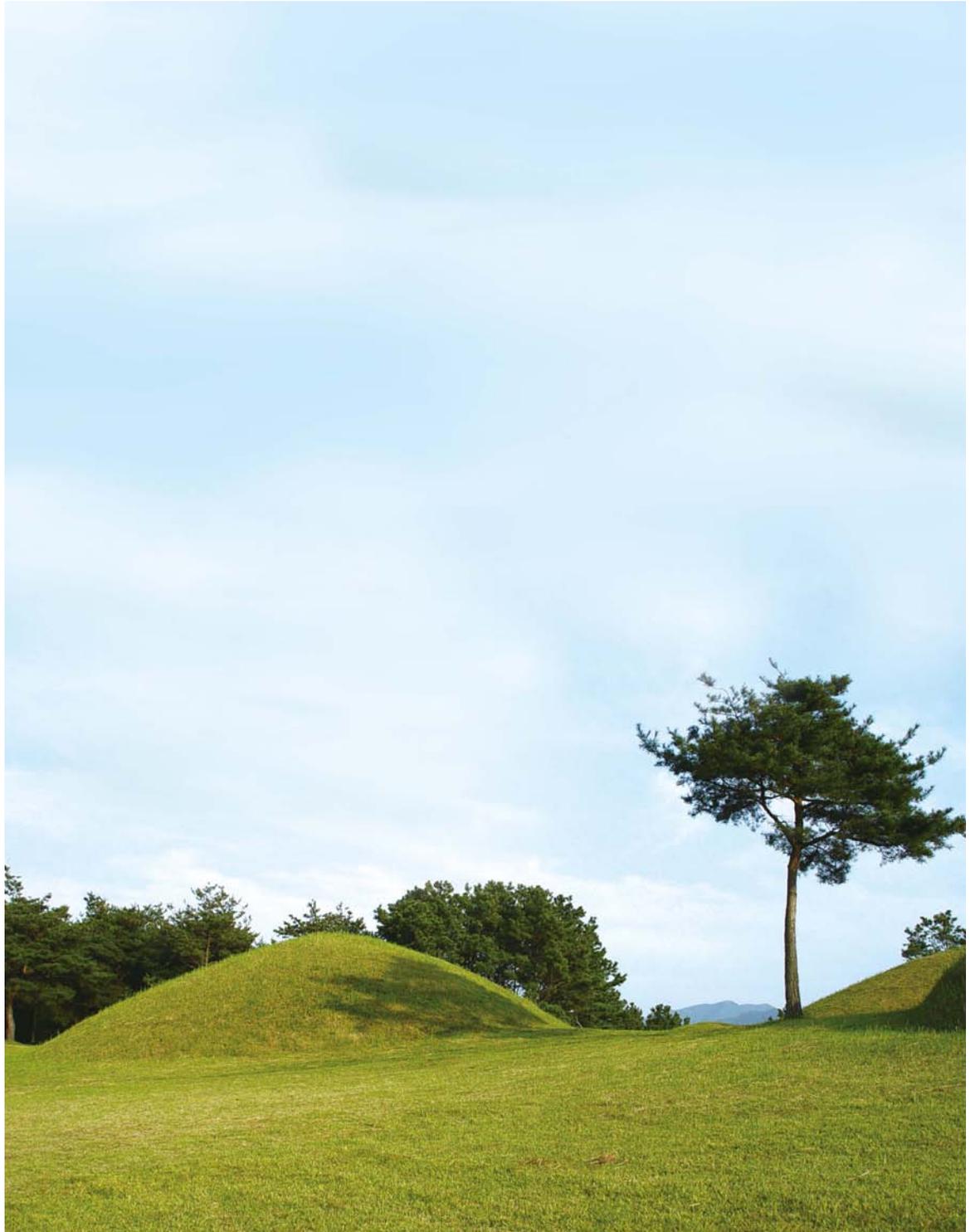


ISSN 2672-0728

加耶

가야
G A Y A

Magazine 가야 VOL. 3, 2020 겨울



책임운영기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VER STORY

Magazine 가야 VOL.3의 표지사진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박종익 전소장님께서
촬영한 합천 옥전 고분군입니다.

표지의 유물은 김해 대성동 76호 출토
목걸이입니다.

표지의 한글 및 한자 글씨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김천수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원경

Magazine 가야 Vol. 3.

발행일 2020년 11월 26일

발행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주소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56

전화 055) 211-9000 www.nrich.go.kr/gaya

기획 양숙자, 안경화, 서미레

행정지원 강형도, 정동건

집필 최규호, 박상구, 윤정은, 최인철, 김소영,

안경화, 서미레

디자인 (주)오엔 055) 262-2116 <http://oan.kr>

내 고향 가야유적

- 04 1) 남원의 가야유적
- 12 2) 산청의 가야유적

가야유적 최신 발굴조사 현장 소개

- 22 1) 김해 대성동 고분군
- 30 2) 합천 옥전 고분군
- 36 3) 진주 가좌동 고분군



김해 대성동 115호 나무널무덤 출토 호랑이 모양 허리띠 장식



김해 대성동 76호 출토 목걸이

가야유적 출토 유물 소개

- 46 1) 수레바퀴모양토기
- 50 2) 보물이 된 가야의 유리 목걸이

가야문화유적 상설전시 기관 소개

- 54 1) 대가야왕릉전시관
- 55 2) 국립경상대학교박물관

가야유적 연구자료 소개

- 56 1) 53년만에 간행된 창녕 계성 고분군 5호분 보고서
- 57 2) 2019 가야학술제전 학술총서 발간

- 58 창원 현동유적 특별전개최-창원시립마산박물관

- 62 가야유적코스(고성)

- 66 가야유적 보존관리(사적지정) 현황

- 68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사진관

● 내고향 가야유적

최규호
남원시청

1

남원의 가야유적

- 1) 전북대학교박물관, 1987, 『남원지방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전북대학교박물관, 2004, 『남원 문화유적분포지도』, 남원시.
- 2) (재)해원문화재연구원, 2015,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 주변 문화재 고분군 분포조사』, 남원시, 군산대학교박물관, 2016, 『남원 운봉고원 제철유적 분포조사』, 전라북도 남원시,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8, 『전북가야사 및 유적 정비 활용방안』, 전북연구원, 2019, 『전북가야 제철 및 봉수 정밀현황조사』, 전라북도.
- 3) 곽장근, 1999, 『호남 동부 지역의 석곽묘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천수, 2018, 『5~6세기 고고자료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가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4) 전영래, 1983, 『남원, 월산리 고분군 발굴조사보고』,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 남원 월산리, 청계리,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원경(전북문화재연구원 제공)



남원가야의 명칭 기문국(己汶國)

남원(南原)은 전라북도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두대간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교통을 이어주는 지리적·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신라 신문왕 5년(685) 남원 소경(南原小京)을 두어 그 중요성을 둔 이래 그 명칭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많은 유적과 유물이 분포하고 있다.¹⁾ 그 중 가야유적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은 동부 산악지대로 운봉고원이라고 불리는 지역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총은 180여기, 횃불과 연기로 신호를 주고받던 봉수, 제철유적, 산성은 55개소에 달한다.²⁾

운봉고원은 가야와 백제의 접경지대로 가야와 백제의 문화가 서로 전달되는 관문의 역할을 했다. 남원의 가야유적을 통해 가야 유적의 서쪽 분포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백제와 인접한 접경지대로 유력한 세력을 가진 정치체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정치체의 명칭은 『삼국사기』의 우륵 12곡 중 상기물(上奇物), 하기물(下奇物), 『일본서기』의 기문(己汶), 『양직공도』의 상기문(上己文), 『신창성씨록』의 삼기문(상기문·중기문·하기문) 등으로 기록된 기문국(己汶國)으로 비정³⁾되고 있다.

특히 대표 유적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함천 옥전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과 함께 7개 고분군이 연속유산으로 '가야고분군'으로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에 선정되었다.

남원에 가야유적이 알려지게 된 것은 1982년 88올림픽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위치한 월산리 고분군 조사가 이루어지면 서부터이다.⁴⁾ 지배자의 무덤으로 알려진 고총을 비롯한 봉수, 제철유적, 산성 등 유적이 확인되었다. 그 중 발굴조사된 유적을 중심으로 남원의 가야유적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2.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남원의 대표 가야 유적인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현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되어있으며, 연비산(해발 843.1m)에서 아영분지의 중심부까지 뻗어 내린 산줄기에 자리하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와 아영면 두락리에 해당되어 유적의 명칭이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다. 전라북도지정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될 당시에는 백제 고분군으로 알려졌으나, 1989년 전북대학교박물관의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계 고총군으로 밝혀졌다.⁵⁾ 2011년 지표조사 결과, 산줄기의 정상부와 북쪽으로 돌출된 두 갈래의 지류, 남쪽 기슭에 현재 봉토의 일부가 잔존되어 있거나, 고분의 부재로 추정되는 석재가 노출되어 있어 명확하게 고분으로 추정 할 수 있는 40여기의 고총이 확인되었다.⁶⁾ 198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발굴조사를 한 결과, 6기의 봉토분에서 구덩식돌덧널무덤과 굴식돌방무덤이 확인되었다. 이중 32호분은 직경 21m 크기의 타원형 봉토가 온전히 남아있다.⁷⁾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삼국시대 무덤 축조 기술을 알 수 있어 그 가치가 높는데,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계획된 축조공정(정지~봉분쌓기), 토제를 쌓고 구획석 설치 후 성토, 봉분을 견고하게 쌓기 위해 서로 다른 토성의 흙을 관측기법으로 교대로 쌓는 기술력이 동원, 채토(採土) 및 배수를 위한 주구의 시설, 돌덧널 축조 시 목주(木柱) 이용 등이 확인 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원통모양 그릇받침을 비롯한 각종 토기류, 고리자루 큰 칼·쇠화살촉 등의 무기류, 살포(눈에 물꼬를 트거나 막을 때 쓰는 농기구)·쇠낫·쇠도끼 등의 농공구, 말띠꾸미개 등의 말갖춤류, 갑옷편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32호분에서는 백제 왕릉급에서만 부장되는 청동거울인 의자손수대경(宜子孫獸帶鏡)과 백제계 금동 신발편이 출토되었다. 으뜸돌덧널의 남쪽 장벽 옆의 봉분 안에서 말의 하악골이 출토되어 봉분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말을 희생시키는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3.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분 출토 의자손수대경(전북대학교박물관 제공)

5) 전북대학교박물관, 1989, 「두락리」, 전라북도 남원군.

6) 군산대학교박물관, 2011,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 정밀지표조사」, 남원시.

7) 전북대학교박물관, 2015,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32호분」, 남원시.



4

4.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원경

5

6

5. 남원 월산리 고분군 전경(전북문화재연구원 제공)

6. 남원 월산리 고분군 M5호분 북쪽 유물출토 상태(전북문화재연구원 제공)

월산리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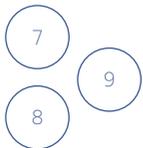
월산리 고분군은 전라북도지정 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되었으며, 봉화산(해발 919m)의 가지능선인 시리봉(해발 777.7m)에서 북동쪽으로 길게 뻗은 동쪽 경사면 말단부인 해발 450m 내외의 완만한 구릉 능선상에 자리하고 있다. 10여기의 고총 중 앞에서 언급한 1982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의해 발굴된 고분은 M1호~M3호분이고, 이후 고속국도 제12호선(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6공구) 구간에 포함되어 조사된 고분은 M4호~M6호분이다.⁸⁾

월산리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는 아영면 일대는 해발고도 410~460m 정도의 고원분지로 봉화산에서 발원한 풍천이 동남류하여 흐르고 있다. 풍천의 서쪽에는 월산리와 청계리 고분군이 있고, 동쪽에는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있다.

월산리 고분군은 도굴과 경작으로 인해 봉토가 많이 유실된 상태에서 조사가 되었다. 조사결과 고분의 축조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장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봉토의 규모는 M1-A호분과 중복관계를 이루는 M2호분·M3호분을 제외하면, 동쪽 경사면의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올라가면서 점차 대형화되고, 제일 위쪽에 위치한 M1-A호분이 최대 규모를 이룬다. 조사된 봉토분은 매장주체부가 구덩식돌덧널로 확인되었지만, 축조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M1호분은 묘광을 굴착하고 구덩식돌덧널을 축조한 후 그 위에 봉토를 조성한 반면 M4~M6호분은 묘광을 굴착하였지만 깊이가 얕아 최하단석만 묘광 내에 있고 2단부터는 돌덧널을 축조하면서 동시에 구축토를 쌓아 올려 최종적으로 봉토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아영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재지계 토기가 주종을 이루고 고령양식과 소가야양식 토기가 함께 출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M1-A호 돌덧널에서 출토된 금은장식 고리 손잡이 큰 칼과 M5분에서 출토된 중국도자 청자계수호(靑磁鷄首壺)와 철제 자루술로 볼 때 운봉고원 일대의 고분군을 축조한 기문국의 성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생각된다. 현재 조사된 고분군 중 M5호, M6호분은 온전하진 않지만 보존조치가 이루어져있다.



7. 남원 월산리 고분군 M5호분 출토 철제자루술(국립전주박물관 제공)
8. 남원 월산리 고분군 M5호분 출토 중국제 청자(국립전주박물관 제공)
9. 남원 월산리 고분군 M1-A호 출토 금은장식 고리 손잡이 큰 칼 편(국립전주박물관 제공)

8)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남원 월산리 고분군-M4·M5·M6호분-』.



10. 남원 청계리 청계 고분군 조사 후 전경(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제공)

청계리 청계 고분군

청계리 고분군은 현재 전라북도지정 기념물 지정 신청 중에 있으며, 백두대간 산줄기에 자리한 고분은 시리봉(해발 777.7m)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산비탈면 말단부의 능선 위에 있다. 남원 아영분지 일대의 최대 고분군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사적 제542호), 남원 월산리 고분군(전라북도 기념물 제138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10여기의 고분이 확인되며 주변에 소형고분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봉토분 1기를 발굴 조사한 결과 약 31m, 너비 약 20m, 남아있는 높이는 5m 내외의 봉토를 갖춘 대형 고총으로 파악되었다. 고분은 본래 지형을 'L'자형으로 깎아내고, 다시 성토하면서 평탄면을 만든 후에 되파거나 성토와 동시에 매장시설을 안치하여 조성되었다. 매장시설은 돌덧널 총 3기가 'T'자형의 구조로 배치되어 있다. 2호와 3호 돌덧널을 서로 직교하도록 먼저 시설하고, 2호 돌덧널의 남쪽에 1호 돌덧널이 마련된 구조이다.

출토유물 중 토기류는 대가야, 아라가야, 금관가야, 소가야 양식이 모두 확인되었다. 특히 수레바퀴모양토기편은 호남지역 최초로 출토되었는데 이 토기는 아라가야를 대표하는 유물로, 현재까지 전하는 유물로는 함안 말미산 4호(구 34호)와 전(傳) 의령 대의면에서 나온 출토품이 있다. 또한 화살통, 꺾쇠, 허리띠 장식 등의 위세품과 함께 목제 빗[수줄, 堅籬]이 호남지역 가야계 고총에서 처음 확인되었는데 이 유물은 묶은 머리를 고정시키는 용도의 작은 빗으로 일본 야요이시대 부터 많이 확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김해, 고령의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바 있다.

청계리 고분군은 출토 유물로 보아 인근에 있는 남원 월산리 고분군이나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 비해 빠른 5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고분의 축조기법이나 출토유물에서 토착적인 요소(성토와 매장시설의 동시 조성, 주구의 확인)와 외래적인 요소(T자형의 돌덧널의 배치, 아라가야·대가야·왜계·중국 유물)가 함께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당시 주변 지역과 활발한 대외교류를 통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한 운봉고원 기문국의 역동성을 엿볼 수 있다.

9) 오동선, 2020, 「남원 청계리 청계 고분군의 구조와 축조기법」, 『남원 청계리·월산리 고분군 역사적 가치와 의미』, 전라북도·남원시·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11. 남원 청계리 고분군 원경(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제공)

건지리 고분군

남원시 인월면 건지리 산13번지 일대에 자리한 고분군으로 1988년 전북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했다. 고분은 서쪽 경사면의 가파른 지역을 제외한 구릉 지대에 밀집 분포되어 있는데, 봉토는 유구의 훼손상태가 심하여 원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 유적에서는 ‘가’지구에서 17기, ‘나’지구에서 5기, ‘다’지구에서 17기의 구덩식돌덧널무덤이 조사되었다. ‘가’와 ‘다’지구는 여러 개의 돌덧널이 하나의 봉토에 자리하고 있으며, ‘나’지구는 하나의 봉토에 1기의 돌덧널이 자리한다. 고분의 축조방법은 생토면을 파내어 묘광을 마련한 다음 돌덧널을 축조하고, 그 위에는 여러 매의 천정석을 올렸다. 벽석은 바닥에 대형 판상석을 서로 잇대어 수직으로 세우고 그 위에 할석(割石)과 천석(川石)을 가지고 가로와 모로쌓기방식을 혼용하여 곧게 쌓아 올렸다. 돌덧널의 바닥면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풍화암반층을 정연하게 다듬어 그대로 이용하였다. 긴목향아리, 굽다리접시 등 출토유물을 통해 인근 지역의 가야계 유물과 연관성을 확인한 유적이다.

임리 고분군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임리마을 서북쪽에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해발 490m 내외의 산줄기에 자리하고 있는데, 능선의 정상부와 가지능선에 대략 30여기의 봉토분이 분포되어 있다. 2011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서 동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1기의 고분을 대상으로 학술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봉토분에서는 3기의 돌덧널무덤이 조사되었는데, 봉토의 중앙부에 으뜸돌덧널이 배치되어 있고, 그 동북쪽에 2기의 소형돌덧널이 배치되어 있다. 으뜸돌덧널은 앞트기식으로 벽석의 하단은 큰 석재를 세워 쌓고 그 위로는 할석을 얹혀 쌓았다. 이러한 벽석의 축조양상은 운봉고원내 조사된 월산리·두락리·건지리고분군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양장벽 사이를 막은 형태 및 장축방향이 경사면과 나란한 점은 백제계 돌덧널무덤의 속성을 담고 있고, 소형돌덧널은 구덩식으로 한 봉토 내에 으뜸돌덧널과 함께 축조된 순장곽일 것으로 보고 있다.



12. 남원 청계리 청계 고분군 2호 돌덧널무덤 출토 수레바퀴모양 토기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제공)

10) 전북대학교박물관, 1991, 『남원 건지리 고분군』, 문화재연구소.

11) 군산대학교박물관, 2013, 『남원 임리 고분군』, 남원시.



13. 남원 아막성 전경(국립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제공)



14. 봉화산 봉수 근경(국립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제공)

아막성

아막성은 전라북도지정 기념물 제38호로 지정되었으며, 남원시 아영면과 장수군 변안면 경계를 이루는 백두대간 시리봉(해발 777.7m)에서 북쪽으로 2km 가량 떨어진 산줄기에 위치한다. 산성은 아영분지를 비롯한 고대부터 영호남을 이어주던 백두대간의 주요 고갯길인 북성이재와 치재 등이 한눈에 조망되는 곳으로 아영분지에 들어서기 위한 주요 길목이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602년(무왕 3년) 백제와 신라간에 격전이 벌어졌던 아막성 전투의 무대이며, 전투 이후 주변에 4개의 요새를 거느려 모산성(母山城)으로 불리기도 했다.

산성은 평면사각형으로 계곡을 감싼 포곡식 산성으로 전체 둘레가 약 640m이다. 산성의 내부에는 3개소의 문지와 건물대지, 집수시설 추정지 등이 남아있다. 성벽은 기본적으로 편축식으로 축조되었지만, 일부구간은 협축식 축조기법이 병용되었다. 축조재료는 장방형으로 다듬어진 할석이 사용되었다. 성벽은 대부분 무너졌으나 서북벽 일부는 성벽이 잘 남아있으며, 북문지와 북벽 일부는 복원되었다.

성 내부는 남고-북저의 지형으로 대체로 완만한데, 북벽과 인접한 곳은 현재 암자터와 경작지로 조성되었다. 경작지에서는 집선문, 격자문, 파상문이 시문된 회청색몸통편, 토기아가리편, 뚜껑접시편, 기와편 등 백제계, 가야계, 신라계 유물이 모두 확인된다.

2019년 북쪽 평탄대지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져 초대형 집수시설, 추정 건물지 등이 조사되었고, 삼국시대~나말여초(후백제)에 이르는 유물이 수습되어 산성의 중심 운영시기로 추정되었다. 특히 가야토기편도 수습되어 이 지역의 가야 정치체에 의해 산성이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현재 산성의 역사성 조명을 위해 시굴조사에서 드러난 집수시설, 성벽 등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12) 군산대학교박물관, 2018, 『남원 아막성 정밀지표 측량조사』, 남원시.

13)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9, 『남원 아막성 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남원시.

봉화산 봉수

아막성처럼 남원시 아영면과 장수군 번암면 경계에 위치한 백두대간의 봉화산 정상부(해발 919.8m)에 위치한다. 봉수의 남쪽에는 삼국시대 호남과 영남의 큰 관문이었던 치재가 있으며, 이 고갯길의 사이에 두고 북쪽에 봉화산 봉수, 남쪽에 남원 매봉봉수와 아막성이 자리한다.

봉화산에 오르면, 동쪽으로는 남원 아영분지와 멀리 경남 함양군까지 조망되며, 서쪽으로 금강 섬진강 수계인 장수군 번암면 일원이 조망된다. 현재 봉화산의 정상부에는 백두대간 등산로가 지나고 있으며, 중심부에 대형 표지석과 측량기준점이 시설되어 있다. 또한 북쪽 가장자리에 산불감지 카메라와 산림청에서 복원된 봉수 구조물이 남아있다. 2013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서 봉화산 봉수에 대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자연암반층을 깎아내고, 여기서 떨어져 나온 석재를 사용하여 가장자리를 두른 단 시설이 확인되었다. 규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장수 영취산 봉수의 봉수 기초부와 동일한 구조이다. 또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밀집과 상문이 시문되어 있는 가야계 토기편을 비롯한 삼국시대 토기편이 출토되어 삼국시대 가야세력에 의해 축조·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14) 군산대학교박물관, 2016, 「장수 영취산·봉화산 봉수」, 장수군.

참고문헌

《학술논문》

- 전영래, 1983, 「남원, 월산리 고분군 발굴조사보고」,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곽장근, 1999, 「호남 동부 지역의 석곽묘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천수, 2018, 「5~6세기 고고자료로 본 가야의 국가적 성격」,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가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오동선, 2020, 「남원 청계리 청계 고분군의 구조와 축조기법」, 「남원 청계리·월산리 고분군 역사적 가치와 의미」, 전라북도·남원시·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가야고분군을 시작으로 세계유산으로

자체의 역사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가야는 오랫동안 신비의 나라, 수수께끼의 나라로 여겨져 왔다. 발굴조사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가야의 실체는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아직 우리 지역은 개별 유적에 대한 정밀지표 및 측량조사와 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유적이 많다. 일부 조사를 실시한 유적도 추가 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 자료가 더 많아지고 다양한 이론 및 방법론의 개발, 과학적 분석이 함께 한다면 가야는 더 이상 신비의 나라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적은 문화재 지정이 되고 지정이 되면 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후 체계적인 학술조사와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야유산이 가야고분군을 시작으로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 행정의 지원, 시민의 관심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유산을 넘어 세계유산이 되길 기대한다.

《보고서》

- 전북대학교박물관, 1987, 「남원지방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전북대학교박물관, 1989, 「두락리, 전라북도 남원군」.
전북대학교박물관, 1991, 「남원 건지 리고분군」, 문화재연구소.
전북대학교박물관, 2004, 「남원문화유적분포지도」, 남원시.
군산대학교박물관, 2011,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 정밀지표조사」, 남원시.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남원 월산리 고분군-M4·M5·M6호분」, 군산대학교박물관, 2013, 「남원 임리 고분군」, 남원시.
전북대학교박물관, 2015,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32호분」, 남원시.
(재)해원문화재연구원, 2015,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 주변 문화재 고분군 분포조사」, 남원시.
군산대학교박물관, 2016, 「남원 운봉고원 제철유적 분포조사」, 전라북도 남원시.
군산대학교박물관, 2016, 「장수 영취산·봉화산 봉수」, 장수군.
군산대학교박물관, 2018, 「남원 아막성 정밀지표 측량조사」, 남원시.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8, 「전북가야사 및 유적 정비 활용방안」, 전북연구원.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9, 「남원 아막성 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남원시.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9, 「전북가야 제철 및 봉수 정밀현황조사」, 전라북도.

● 내고향 가야유적

박상구
산청군청

2

산청의 가야유적

경상남도의 서북부에 자리하고 있는 산청군은 동쪽으로 함천군과 의령군, 동남쪽으로 진주시, 남서쪽으로 하동군과 함양군, 북쪽으로 거창군과 인접하고 있다.

산청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2만 년 전 후기구석기 시대로, 옥산리 유적에서 찌개와 밀개, 톱니날을 비롯하여 석기제작 과정에서 깨어져 나온 격지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신석기시대에는 경호강을 따라 유적이 형성되어 있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집터와 적석유구, 여러 점의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는 산청읍 옥산리와 묵곡리, 단성면 강루리, 사월리 유적 등에서 집터와 민무늬토기, 간돌검 등이 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에는 단성면 소남리 유적에서 대규모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유적이 확인되었다.



가야로 접어들면서 60개소가 넘는 생활·분묘유적이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촌리 고분군, 옥산리 고분군, 묵곡리 고분군, 생초고분군, 명동고분군, 평촌리 고분군 등이 발굴조사되어 산청지역 가야문화의 실체를 밝혀주고 있다.

산청지역 곳곳에 위치한 가야의 생활·분묘유적 외에 문헌상 나타나는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서기』에는 가야에 걸손국(乞漚國)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삼국사기』에 경덕왕 때 궐지군(闕支郡)을 궐성군(闕城郡)으로 바꾸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서기의 걸손과 삼국사기의 궐지는 동일한 지역으로 현재 산청군 소재의 단성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정된다.

문헌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산청지역 가야문화의 실체는 불분명하지만, 최근까지 발굴성과를 통해 어느 정도 가야의 문화상을 복원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산청군의 대표적인 생활·분묘·관방·생산 유적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1. 산청 중촌리 고분군 전경(경남연구원 제공)

중촌리 고분군

중촌리 고분군은 신안면 원지에 위치한 삼국시대 산성인 백마산성 인근 능선에 분포하고 있다. 유적의 앞으로는 급경사면의 산지와 갈전리에서 발원하는 소하천이 경호강으로 흘러들고 있다. 뒤로는 백마산에서 뿜어 내리는 능선이 산성마을을 둘러싸고 있어 분지지형을 이룬다. 백마산 너머로는 경호강이 남류하고, 강변에는 넓은 충적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문화유적총람에서 고려시대 무덤으로 전해지며 최초로 소개되었고, 이후 신라대학교박물관에서 굴식돌방무덤인 1·3호분과 구덩식돌덧널무덤인 21·50호분을 선별 조사한 결과 다양한 토기류와 위세품이 출토되었다. 이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M1호분과 5호분을 발굴조사하여 소가야지역의 고총고분의 성격을 밝혔다. 현재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D-M1호분에 대한 재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중촌리 고분군의 성격을 밝히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촌리 고분군은 능선과 사면부를 따라 200여기가 확인되는데 대부분 10~20m 내외의 중형급에 해당한다. 직경 20m 이상의 대형급은 10여기 정도 확인되는데 높이가 6m 이상에 달하는 초대형분도 확인된다.

중촌리 고분군은 나무덧널무덤부터 구덩식돌덧널무덤, 굴식돌방무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었다. 이전 무덤 형식인 나무덧널무덤 중에서 3호분-北나무덧널무덤은 요상(凹狀)구조의 시상이 설치되어 있는 점과 5m 이상의 크기를 갖춘 점, 다량의 토기와 금속유물이 부장되어 있는 점, 산청지역을 포함 소가야지역에서 출토된 예가 드문 금동 말갖춤과 고리 손잡이 큰 칼 등의 위세품이 출토된 점을 보아 피장자의 신분을 짐작케 한다.

구덩식돌덧널무덤은 여러 기가 발굴조사 되었는데, 그 중 21호와 50호는 소가야의 특징인 여러널식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3호분-東돌덧널무덤, 21호분은 바닥면을 굴착한 후 최하단석을 세워쌓기하고 상단석을 횡평적(橫平積)하는 방식으로 축조하였는데 이는 인근에 위치한 명동고분군에서 사용된 방식과 같다. 돌덧널무덤에서는 주로 뚜껑있는굽다리접시·뚜껑·목짧은항아리·그릇받침 등의 토기류와 쇠창·쇠손칼 같은 금속류가 출토되었으며 5호 돌덧널무덤에서는 결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꺾쇠가 출토되었다.

굴식돌방무덤은 중촌리에서 3기가 확인되었는데, 묘제의 특성상 도굴이 용이하기 때문에 유물의 대부분이 도굴되었다. 그 중 3호 돌방무덤은 현실의 평면은 세장방형이며 천장은 평천장의 구조로 되어 있다. 벽면은 약한 경사로 내경하면서 축조되다가 연도 개석이 설치되는 부분부터는 급격히 내경하며 축조되는 특징을 띤다. 연도는 좌벽으로 치우친 양수식구조이다. 현실에 비해 연도는 긴 편이며 개석은 남아있지 않았다. 연도 끝부분은 할석을 쌓아 폐쇄하였고 입구에 대형판석을 세워 마무리하였다. 유물은 운주·등자·재갈 등의 말갈춤류와 쇠도끼·쇠화살촉·쇠손칼 등의 무기류, 관고리·꺾쇠 등이 다량 출토되었으며 토기는 남아있지 않았다.

중촌리 고분군은 낙동강에서 남강을 통해 전달되는 신라, 금관가야, 아라가야 등의 선진 문물을 내륙지역인 생초, 함양, 거창, 남원 등지로 전달하며, 금강과 섬진강 상류를 통해 전달되는 백제문물을 가야지역에 전달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한 남강을 통해 사천만으로 곧바로 진출할 수 있어 해양을 통한 선진문물의 입수에도 용이한 지역이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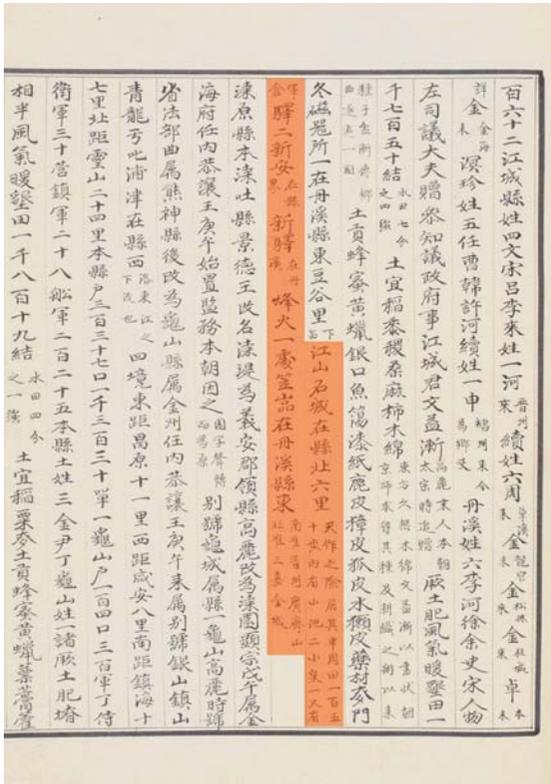


2. 산청 중촌리 3호분 나무덧널무덤 출토
봉황무늬 고리 손잡이 큰 칼
(국립경상대학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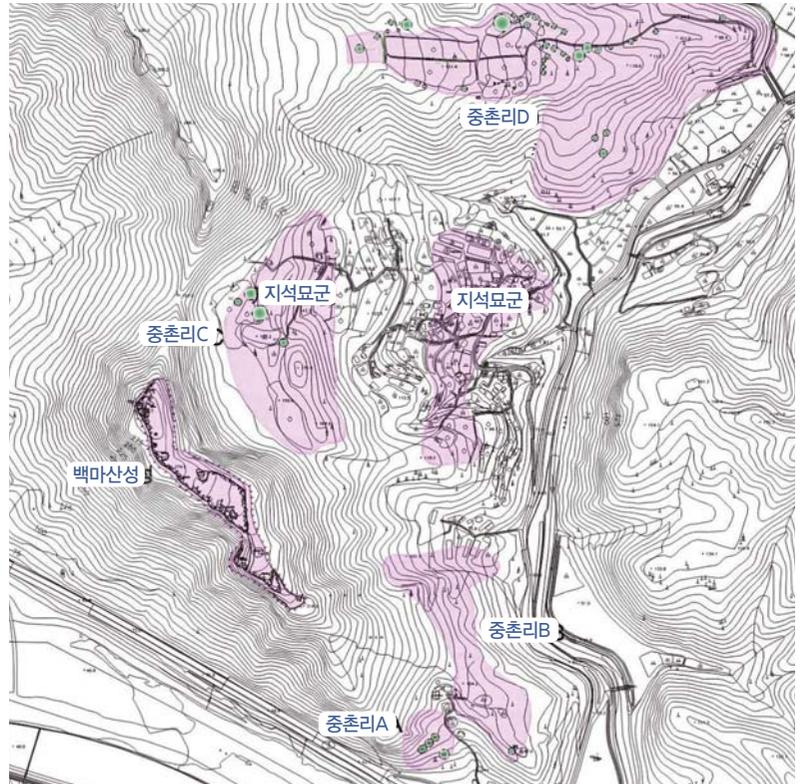


3. 산청 중촌리 3호분 나무덧널무덤 출토
봉황무늬 고리 손잡이 큰 칼
세부
(국립경상대학교박물관 제공)

1) 하승철, 2010, 「산청 중촌리고분군에 대한 소고」,
「경남연구」 제2집,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4. 세종실록 150권, 지리지 경상도 진주목 진성현(국사편찬위원회 제공)



도면 1. 산청 중촌리 고분군과 백마산성 분포도(극동문화재연구원 제공)

江山石城, 在縣北六里°【天作之險, 居其半°周回一百五十步, 內有小池二' 小泉一' 又有軍倉°】驛二, 新安°【在縣界°】新驛°【在丹溪°】烽火一處, 笠嶺在丹溪縣東°【南準晉州 廣齊山, 北準三嘉 金城°】

강산 석성은 현 북쪽 6리에 있다.【천연으로 된 험한 곳이 그 반이고, 둘레가 1백 50보이다. 안에 작은 못 2, 작은 샘 1이 있고, 또 군창이 있다.】역이 2이니, 신안【현 경계에 있다.】신역【단계에 있다.】이요, 봉화가 1곳이니, 입암이 단계현 동쪽에 있다.【남쪽으로 진주 광제산에 응하고, 북쪽으로 삼가현 금성에 응한다.】

- 세종실록지리지

백마산성

백마산성은 산청군 신안면 해발 286.3m의 백마산 정상부에 축조된 산성으로 단성면 소재지를 바라다보는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해 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이 절벽에 가깝게 경사지며 정상부는 비교적 평탄면을 이루고 있다.

산 정상부와 정상부의 서편 가장자리를 따라 암반 곳곳에 대략 60의 기둥구멍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목책을 둘렀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성 내부에는 토루 土壘흔적이 있으며, 군대의 창고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남아있다. 또한 직경 10~15m의 집수지와 우물 2개도 확인된다.

백마산성은 옛 문헌에도 강산성(江山城) 강산석성(江山石城) 동산성(東山城) 등으로 전해지며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성의 위치, 내부시설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산성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산성 아래쪽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중촌리 고분군과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기에 발굴조사를 통해 산성의 규모, 구조, 성격 등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5. 산청 명동유적 전경(경남연구원 제공)

명동고분군

명동고분군은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명동마을에 위치해 있다. 국도 3호선이 지나는 와대고개를 중심으로 서남쪽의 독립구릉과 백마산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북서쪽 구릉 끝단을 중심으로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다.

주로 구덩식 돌덧널무덤이 축조되었는데, 최하단석을 세워쌓고 그 위에 석재를 얹혀 쌓는 축조방식을 사용했다. 봉토의 높은 쪽 가장 자리는 눈썹 모양의 주구를 설치하였다. 봉분 내에는 1기의 구덩식 돌덧널무덤이 위치한 외널식 고분과, 여러 기의 구덩식 돌덧널무덤이 위치한 여러널식 고분으로 나누어진다. 여러널식 고분의 경우, 동시에 축조되는 것이 아닌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축조되었고, 기존의 봉분을 파내어 매장주체부인 돌덧널무덤과 연결하여 추가로 돌덧널무덤을 조영하였다.

유물은 뚜껑 있는 굽다리접시 등 소가야계 토기가 주로 출토되었다.

생초고분군

생초고분군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산 93-1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

태봉산(397.9m)이 남동쪽으로 뺨어 내린 능선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가막산(336m), 선바위산(285.7m)등이 둘러싸고 있다. 고분군의 남동쪽에는 산청박물관과 생초 국제조각공원이 입지해 있고, 동쪽에는 생초면소재지가 위치하며 남쪽에는 경호강이 흐른다. 이 강이 곡류하여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있는데, 충적평야에서는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생활유적과 삼국시대 분묘유적 등이 확인 되는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부터 이 일대를 배경으로 취락이 이루어졌고, 삼국시대에는 남강을 수계로 한 주변 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6. 산청 생초 13호분 돌덧널무덤 근경(국립경상대학교박물관 제공)



7. 산청 명동유적 출토 토기(경남연구원 제공)



8. 산청 생초 13호분 으뜸덧널 출토 봉황무늬 고리 손잡이 큰 칼 출토 모습(국립경상대학교박물관 제공)

생초고분군은 조각공원조성부지 외 M12·M13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금동장식 말갓춤 등의 위세품과 대가야계·왜계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생초고분군은 생초면 일대의 최상위 계층들의 무덤으로 축조된 가야고분임을 확인하였다.

능선의 정상부와 사면에 20여기가 넘는 고총고분과 수백여기가 넘는 돌덧널무덤이 분포되어 있다. 그 중 생초 M13호분은 북쪽의 높은 산에서 뻗어 나온 능선의 끝 부분에 위치하면서 급격하게 경사진 산자락과 그 아래 흐르는 경호강, 그리고 강 건너 평촌을 내려다보는 전망 좋은 곳에 축조되어 있다.

봉분은 구릉의 정상부를 평탄하게 파내어 정지한 뒤, 내부에 구덩식 돌덧널을 축조하고 그 위에 봉분을 쌓았다. 그런데 이 봉분은 M12호분이 있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구릉사면을 손질하여 봉분과 연결시킴으로서 산의 아래쪽에서 보면 마치 구릉 전체가 봉분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내부주체인 구덩식돌덧널은 평면 세장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으뜸덧널과 딸린덧널이 11자상으로 나란히 축조되어 있다. 이러한 축조기법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야세력의 대표적 묘제이다.

으뜸덧널과 딸린덧널에서는 생초고분군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토기와 금속류가 출토되었다. 뚜껑 있는 목 짧은 항아리, 뚜껑 있는 목 긴 항아리, 바리 모양 그릇받침이 딸린덧널에서 상당수 확인되었고, 굽다리접시, 뚜껑접시, 컵 모양 토기 등 다양한 토기류가 으뜸덧널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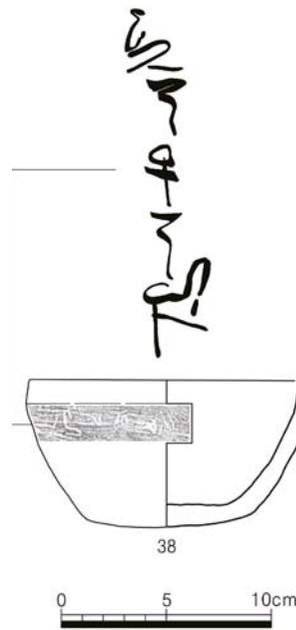
금속유물은 은으로 장식된 봉황무늬 고리 손잡이 큰 칼을 비롯하여 쇠창, 말갓춤류 등이 으뜸덧널에서 확인되었고, 다수의 모형 농공구들이 딸린덧널에서 여러 점 발견되었다.

평촌리 고분군

평촌리 고분군은 생초고분군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 지형은 경호강의 잦은 범람으로 인해 형성된 충적지대이다. 삼국시대에 먼저 밭으로 이용되었다가 이후 고분이 밀집 조영되어 집단의 묘역으로 자리 잡았다.

삼국시대 분묘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묘제는 구덩식돌덧널 무덤이다. 주로 강가의 냇들을 이용하여 네 벽을 쌓아 올렸고 그 위에 개석을 덮어 축조하였으며, 봉분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출토유물은 굽다리접시, 목 긴 항아리, 바리 모양 그릇받침 등의 대가야계 토기류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출토되었고 쇠낫, 쇠화살촉, 쇠도끼, 큰 칼, 쇠창 등이 금속류가 출토되었다. 특히 A36호묘에서는 재갈, 등자, 안장, 교구 등의 말갖춤류가 출토되었다.



9. 산청 평촌리 유적 출토 명문토기(영남문화재연구원 제공)

어외산성

어외산성은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와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해발366.9m)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다 경호강과 마주하는 야산(해발202.9m) 구릉에 축조되어 있다.

산성은 정상부를 정점으로 하여 동서 양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고, 남단은 얇은 골짜기를 포용하면서 단애면의 상부에 성벽이 축조되어 있다. 두 개의 능선을 감싸는 형태로 테피식 산성이고, 40~50cm 크기의 화강암을 이용하여 축조한 석성이다. 성벽의 둘레는 약 790m 이다.

산성은 치석된 형태의 장방형 석재를 사용하여 정상부에서 양가지로 뻗어 내린 구릉 위에 석재를 협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남쪽의 단애부에는 내탁으로 편축하여 축성하였다.

여기에 많은 기와편들이 흩어져 있는데 당초문이 시문된 암막새가 수습된 바 있으며, 평기와와 문양은 굵은 방형의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어 어외산성이 고려시대에 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인접한 생초고분군의 존재로 보아 삼국시대에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산성 정상부 부근의 동편 기슭에는 직경 10m 정도의 집수시설이 있다.



10. 산청 평촌리 유적 전경(경남연구원 제공)

하촌리 유적

하촌리 유적은 생초면 하촌리에 위치한 유적으로 산청-수동간 국도확장공사에 따라 2008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 하였다. 청동기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대규모 복합 취락유적으로 총 1,320점에 달하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중 삼국시대 유구는 주거지 50동, 고상가옥 6동, 도랑 1기, 구덩이 428기, 기둥구멍 581기, 함정 1기, 돌덧널무덤 1, 독무덤 등이 발굴조사 되었다.

주거지는 평면상 장방형이 다수를 차지하며 원형과 방향이 일부 확인된다. 내부에는 황갈색 점질토 또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석재로 취사와 난방을 겸한 부뚜막을 설치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리고 IB-7호 주거지에서 '이득지(二得知)'라는 명문이 새겨진 대가야토기가 출토되었다.

구덩이는 단면이 원통형 또는 복주머니 형태를 띠며 다양한 형태로 이단으로 굴착된 것이 특징이다. 규모와 형태로 보아 취락 내에서 저장시설로 이용되거나 토취장, 폐기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1. 산청 하촌리 유적 출토 '이득지'명토기(영남문화재연구원 제공)



어서리 유적

어서리 유적은 어외산성과 생초고분군 사이로 뻗어 내린 구릉 사면의 평탄면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산청-수동간 국도확장공사에 따라 2006년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가야 토기가마 1기를 비롯하여 소토유구 3기, 석축유구 3기, 구덩이 5기 등 토기생산과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었다.

토기가마는 연소실과 요전부, 회구부는 유실되었고 소성실과 연도부만 남아 있는 반지하식의 등요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가마 주변에서 석축유구와 소토유구, 지상식 건물지 등이 같이 조사되었고, 유물은 가마와 수로 내부 퇴적토 및 각 유구 주변에서 굽다리접시, 뚜껑, 대호, 곧은 입 항아리, 뚜껑 접시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어서리유적은 산청지역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사례가 없었던 가야 가마가 발굴되어 산청 일대의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에서 사용되는 토기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비교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또한 발굴된 구역보다 높은 지대의 산록완사면 일대에서도 가야의 토기와 가마의 벽체가 채집되는 상황으로 볼 때 기존 가마의 분포범위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생초고분군과 중촌리 고분군의 성격

산청에 자리 잡은 가야의 유적은 크게 생초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생초권과 중촌리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단성권으로 나눌 수 있다.²⁾

본 글에서 소개한 생초고분군과 평촌리고분군은 생초권 속하는 대표적인 고분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4~5세기 중반에 소가야계 토기가 주를 이루며 부장되었으나 5세기 중반 이후부터 대가야 세력이 경남의 서북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대가야권역에 편입되는 것으로 본다.³⁾

그러나 단성권으로 구분되는 중촌리 고분군과 명동고분군은 생초권과 다른 양상을 띤다. 중촌리 고분군은 고분의 크기, 말갖춤과 은장식 고리 손잡이 큰 칼 등의 위세품으로 보아 소가야의 최상위 고분군으로 인정되며 4세기 나무덧널무덤 단계에서 6세기 중엽까지 중촌리에서 세력을 떨친 것으로 판단된다.

소가야는 송학동 고분군을 필두로 하는 고성지역에 한정된 세력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남강 중·상류지역과 남해안 일대에 산재해 있는 가야 각각 소국을 통칭한 개념인 '소가야연맹체' 또는 '포상팔국연맹(浦上八國聯盟)'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후자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산청지역의 단성권은 중촌리 고분군을 중심세력으로 인근에 위치한 명동고분군을 포함한 소국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맺음말

산청군에는 많은 유적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 일부 발굴조사를 통해 연구가 진행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적은 관리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훼손되어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현재 산청군에서 진행 중인 중촌리 고분군의 D-M1호분 발굴조사 외에도 지속적인 문화재 조사를 바탕으로 산청군에 터를 둔 선조들의 문화유적의 보존과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승철, 2010, 「산청 중촌리 고분군에 대한 소고」, 『경남연구』.

3) 이승철, 2007, 「대가야토기의 확산과정을 통해 본 대외교통로」, 『동서문물』, (재)동서문화연구원.



12. 산청 생초고분군 일원 가야유적 경관(경남연구원 제공)

참고문헌

〈단행본〉

국립진주박물관, 2011, 『산청』.

〈학술논문〉

하승철, 2007, 「대가야토기의 확산과정을 통해 본 대외교통로」, 『동서문물』, 동서문화연구원.

하승철, 2010, 「산청 중촌리 고분군에 대한 소고」, 『경남연구』.

〈보고서〉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02, 『산청의 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4, 『산청 명동유적 I·II』.

신라대학교 박물관, 2004, 『산청 중촌리 고분군』.

경상대학교박물관, 2006, 『산청 생초고분군』.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 『산청 평촌리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7, 『산청 평촌리 유적 II』.

경남문화재연구원, 2008, 『산청 어서리 유적』.

경상대학교박물관, 2009, 『산청 생초M12·M13호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 『산청 명동유적 III』.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 『산청 하촌리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6, 『산청 중촌리 고분군 2차』.

극동문화재연구원, 2017, 『산청 가야유적 연구·복원 계획수립 용역』.



김해 대성동 고분군 108호 나무덧널무덤



김해 대성동 고분군

대성동 고분군은 대성동 126 일대의 '애구지'라는 구릉과 주변평지 일대를 포함한다. 북쪽으로 약 6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가야의 건국설화가 깃들어 있는 구지봉이, 동쪽으로 약 300m 에는 수로왕릉, 남쪽으로 약 500m 정도 거리에는 봉황대유적이 자리한다. 경성대학교에서 실시한 1차 조사 결과 유적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1990년 11월에 사적 제343호로 지정되었다.

대성동 고분군 발굴조사는 경성대학교에서 1~4차, 대성동고분박물관에 의해 5차부터 금번 발굴조사까지 총 10차례 이루어졌다.

〈 대성동 고분군 조사 현황 〉

| 발굴 기간 | 묘제(기) | 기관 |
|-----------------------------------|---|------------------|
| 1차 1990. 6. 12 ~ 1990. 8. 1 | 1·2호(나무덧널무덤2) | 경성 대학교 박물관 |
| 2차 1990. 9. 3 ~ 1991. 4. 14 | 3호~39호(나무널무덤8, 나무덧널무덤19, 돌덧널무덤6, 돌방무덤2, 독무덤2) | |
| 3차 1991. 10. 18 ~ 1992. 3. 8 | 40호~53호(나무널무덤1, 나무덧널무덤10, 돌덧널무덤3), 주변 I~IV지구(나무널무덤25, 나무덧널무덤18, 돌덧널무덤19, 돌방무덤4, 독무덤12, 널무덤4, 고인돌1, 도랑1) | |
| 4차 2001. 4. 30 ~ 2001. 9. 23 | 54호~67호(나무널무덤5, 나무덧널무덤8, 돌덧널무덤1, 가마3) 주변 V지구(나무널무덤17, 나무덧널무덤5, 돌덧널무덤3, 독무덤4, 돌방무덤1, 널무덤1) | |
| 5차 2009. 10. 12 ~ 2009. 12. 3 | 68호~72호 (나무덧널무덤3, 돌덧널무덤1, 돌방무덤1) | 대성동 고분 박물관 |
| 6차 2011. 7. 29 ~ 2011. 10. 14 | 73~84호 (나무널무덤3, 나무덧널무덤2, 돌덧널무덤4, 독무덤3) | |
| 7차 2012. 6. 4 ~ 2012. 9. 26 | 85호~91호(나무덧널무덤2, 돌덧널무덤5), 구덩이 1기, 조개무덤 일부 | |
| 8차 2013. 6. 25 ~ 2013. 9. 13 | 70호분 으뜸덧널, 95호 | |
| 9차 2014. 6. 24. ~ 2014. 10. 10 | 고인돌 1, 나무덧널무덤 93호~94호 | |
| 10차 2019. 12. 9 ~ 2020. 8. 28 | 96호~149호(나무널무덤 28, 나무덧널무덤26), 독무덤 3, 청동기주거지 1, 구덩이 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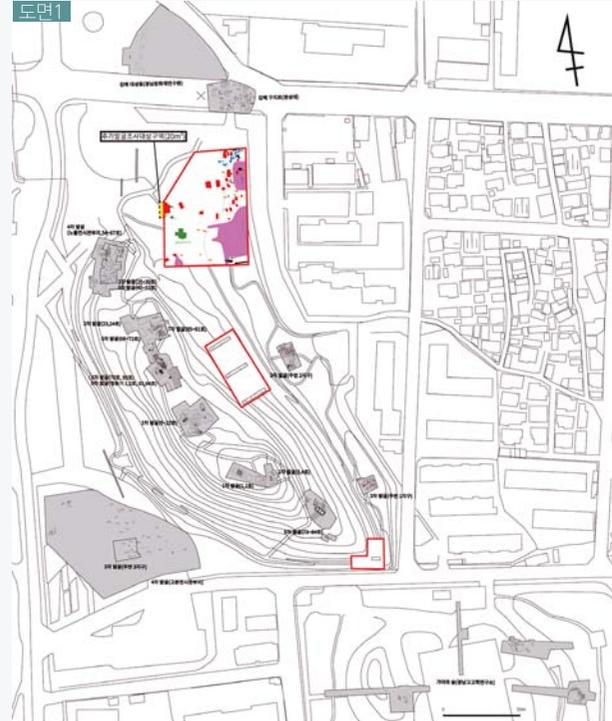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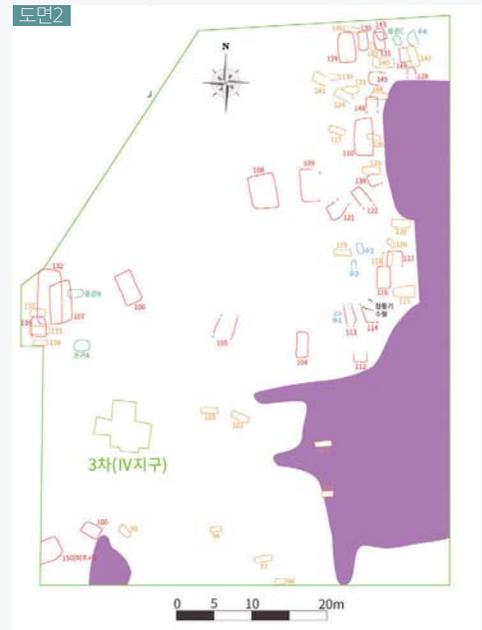
1. 90년대초 대성동 고분군 전경

10차 정밀 발굴조사 구역(3,700㎡)은 대성동 고분군 종합정비구역에 해당되며 고분군의 북동쪽 평지 마당(도면1,2)에 해당한다. 발굴대상지는 옛 태광실업 기숙사와 공장이 있던 부지로 현대건물이 조성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지형의 훼손이 이루어졌으며 유구는 저지대인 동북쪽에 집중 분포한다.

시굴조사는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2019년 7월 15일~19년 10월 20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대성동고분 박물관이 19년 12월 9일~20년8월 28일까지 정밀발굴조사에 실시하였다. 발굴결과 독무덤 3기, 나무널무덤 28기, 나무덧널무덤 26기, 구덩이 등 총 62기를 확인조사 하였으며 10차 발굴조사의 대표유구와 유물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도면1. 발굴조사 대상구역



| 범례 | 청동기시대 유구 | 삼국시대 목관묘 | 삼국시대 수혈 |
|----|----------|----------|---------|
| | 삼국시대 목관묘 | 옹관묘 | 조선시대 유구 |

도면2. 조사구역 유구배치도

유적소개



2. 옹관A 전경



3. 115호 나무널무덤 전경

독무덤

그동안 대성동 고분군에서 발굴조사로 확인된 독무덤은 20여기 정도다. 10차에서 추가로 독무덤 3기가 조사 되었으며 조사지역 동쪽에서 2기(A, B호), 북쪽에서 1(C호)기가 확인 되었다.

대성동 고분군 발굴된 독무덤 중에서 3개의 토기를 연결한 이음식 구조가 처음 확인되었는데 옹관A 호이다. 무덤구덩이의 규모는 길이 92cm, 너비호 35cm, 깊이 30cm로 평면 형태가 타원형이며 주축 방향은 동-서향이다. 독무덤과 무덤구덩이 사이는 암갈색사질토가 채워져 있으며 횡치형(옆으로 누여 옹을 합치하는 방식)으로 매장하였다. 독무덤의 잔존상태는 비교적 좋으며 주옹과 막음옹은 바닥이 평평한 삼각형 덧띠토기이며 그 사이를 민무늬토기로 연결하였다.

나무널무덤

나무널무덤의 주축은 대체로 동-서향이며 장축 3m 가량의 나무널무덤은 3~4기로 대부분의 규모는 2m, 너비 1m 내외의 소형무덤이다. 총 28기를 조사완료 하였으며 무덤구덩이 규모는 이전조사와 큰 차이점이 없다.

평면에서 나무널과 보강토 라인이 뚜렷하게 확인되었으나 후대의 사평, 훼손 등으로 깊이 30cm 내외로 다수 잔존하며 조사지역 북쪽에 2m 이상의 나무널무덤이 확인되었다. 기존의 고분전시관부지에서 확인된 나무널무덤과 같이 구릉 주위의 평지일대에 나무널무덤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무널은 일부 분묘에서 나무널의 바닥재가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나무널의 평면형태는 「포」자형, 단면형태는 「ㅂ」자형인 상자형 나무널무덤이 주류를 이룬다.



4. 115호 나무널무덤 출토 호랑이 모양 허리띠 장식



5. 115호 나무널무덤 출토 목걸이

나무널무덤의 시기는 가야 형성기 사회상 파악에 중요한 자료인 1세기 후반에서 2세기대 나무널무덤이 주류를 이룬다. 출토유물은 3m이상의 115호, 140호, 147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토기 1~2점, 철기 1~2점, 목걸이 등으로 그간 발굴 조사된 대성동 나무널무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출토유물 중 수정제, 유리제 구슬이 다량 확인되었으며 구슬 중 에메랄드빛 유리제 광물로 추정되는 여러면구슬이 출토되었다. 양동리 고분군 325호의 여러면구슬과 유사하며 이는 동남아산 광물로 보는 견해도 있어 향후 연구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또한 115호 나무널무덤에서 허리띠장식구인 호랑이 모양 허리띠 장식과 말 모양 허리띠 장식이 함께 출토되었다. 그간 김해지역에서 출토된 동물 모양 허리띠 장식은 호랑이 모양 허리띠 장식의 경우 대성동 고분 11호·67호에서 각 1점, 말 모양 허리띠 장식은 구지로 42호, 양동리 고분 382·384·401호에서 출토되었다. 경북 영천 어은동유적에서 호랑이 모양 허리띠 장식과 말 모양 허리띠 장식이 동시에 발견되었으나 폭우로 노출된 유물을 수습한 사례로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두 점 모두 나무널의 중앙에서 출토되었으며 피장자가 직접 착용한 상태로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호랑이 모양 허리띠 장식의 크기는 길이 12.9cm, 높이 7.4cm, 말 모양 허리띠 장식은 길이 4.1cm, 높이 2.5cm 정도이며 말과 호랑이의 얼굴표현을 문양으로 대체하여 간략화 하였으나 몸에 장식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6. 133호 나무널무덤 출토 목걸이



7. 108호 나무덧널무덤



8. 108호 나무덧널무덤 토기세트 출토상태

나무덧널무덤 (도굴되지 않은 가야 귀족묘 108호)

나무덧널무덤은 총 26기로 주축은 대체로 남-북향으로 후대 삭평으로 인해 대부분 깊이 20~30cm 내외로 잔존하였으며 108호 나무덧널무덤만이 온전한 상태로 발굴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나무덧널무덤 무덤구덩이의 평면 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이며, 중소형분에 해당된다.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3세기 후반에서 4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108호의 주축방향은 남-북향이며 무덤구덩이의 남·북쪽 끝단은 후대 교란으로 상부일부가 삭평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494cm, 너비 346cm, 깊이 60cm 정도로 장축과 단축의 차가 크지 않아 정방형에 가까운 나무덧널무덤이다.

무덤구덩이와 나무덧널사이의 보강토는 폭 60cm가량으로 사질토와 점질토로 교대로 다져 충전하였다. 나무널과 나무덧널 사이에는 황갈색점토와 회색점토가 다수 혼입된 갈색토를 충전하였다.

바닥에서 약 25~30cm가량 높이에서 회색점질토가 유구 전체에서 확인되었다. 회색점질토는 유구의 장축 방향으로 확인되었으며 토층단면의 양상을 보아 직경 12cm가량의 나무를 반으로 쪼개서 나무덧널의 뚜껑 역할로 간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는 토압으로 인해 높이가 다르게 노출되었다.

북쪽 단벽과 동쪽 장벽 일부에서는 나무덧널의 목질층이 상하 2단 확인되는데 폭 12cm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파악되는 108호의 구조는 무덤구덩이를 먼저 굴착한 뒤 나무덧널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폭 10cm 내외의 도랑을 깊이 7~10cm 정도로 판 뒤 장벽 나무덧널을 고정 후 단벽과 결구한 구조로 추정된다. 덧널의 규모는 396×220cm 정도로 나무덧널바닥에도 20~30cm 내외의 나무판재를 깔았으며 일부는 목질이 그대로 잔존한다.



9. 108호 나무덧널무덤 출토 고리 손잡이 큰 칼
 10. 108호 나무덧널무덤 출토 청동그릇
 11. 108호 나무덧널무덤 출토 청동거울

나무덧널 내부는 대형의 덩이쇠(10×40cm) 20매를 2열로 칸 공간과 점토를 깔아 만든 공간으로 크게 구획되며 북쪽 단벽과 동쪽 장벽에 토기류를, 남쪽 단벽에는 칠기류를 배치하였다.

동쪽 장벽을 따라 화로형토기 안에 목짧은항아리를 넣은 토기세트를 3렬로 연이어 배치하였으며 가운데 세트는 또 다른 화로형+목짧은항아리 세트와 중첩되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나무덧널 뚜껑 위에 올린 토기세트가 나무덧널 뚜껑이 부식되면서 내려앉은 것으로 파악된다. 화로형토기는 반원형손잡이를 가지며 구연이 직립에 가깝고 일부 토기 외면에는 암문(暗文)이 그려져 있다. 북쪽단벽을 따라서는 목짧은항아리 6점을 배치하였다. 토기의 기형으로 미루어 볼 때 대성동고분 91호 단계, 4세기 초반의 나무덧널무덤임을 알 수 있다

인골은 점토대 공간 위에 두향이 남향인 인골 1(치아와 경골)과 발치 아래에 인골 2(대퇴골), 북쪽 단 벽 토기 아래에서도 인골 3이 확인되었다. 점토대 공간 위 인골 1과 북쪽 단벽아래 인골 3은 목걸이를 갖추고 있지만 점토대 공간의 인골 발치 아래 직교하게 나온 대퇴골은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나무덧널무덤에서는 덩이쇠 위 공간은 보통 주피장자를 안치하는 곳으로 해석되므로 적어도 3인 이상이 108호에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순장자의 수, 피장자와 순장자의 관계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먼저 덩이쇠를 칸 공간은 덩이쇠 위로 200여점의 쇠화살촉이 올려져 있으며 축의 방향은 동쪽이다. 덩이쇠 위에도 벽옥제 목걸이가 한쪽 으로 치우쳐져 확인되었다. 피장자 발치 아래에 통형동기(筒形銅器)와 나무상자로 추정되는 유기물이 출토되었다. 피장자의 머리 위쪽에 고리 손잡이 큰 칼, 청동그릇, 청동화살촉, 철창, 철도끼, 칠기그릇 등을 배치하였다.

나무상자로 추정되는 유기물은 나무에 삼각형 모양과 조각을 새기고 조개가루 혹은 뿔가루 등으로 메운 후 붉은색 수은주와 옷칠로 마감한 상자이며 상자주변에 목심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수량과 형태, 구조를 알 수는 없으나 역새와 같은 유기물을 엮은 망태기 등으로 추정된다.



12. 108호 나무덧널무덤 출토 목걸이



13. 108호 나무덧널무덤 출토 화살촉모양 옥제품

점토대 공간 위는 피장자의 치아 아래에서 곡옥과 벽옥제 관옥을 연결한 목걸이(사진14.-108호 출토 목걸이)이 놓여있으며 머리 위에 복발을 가지는 투구[冑]와 화살촉모양 벽옥제, 칠기류가 출토되었으며 피장자 옆에 응회암제 원형 석제품, 피장자의 발치 아래에서는 이지창(二枝槍) 및 U자형 삽날, 철도끼가 확인되었다. 특이한 것은 점토대 공간 위로 삼각형무늬가 새겨진 유기물이 전체적으로 깔려 확인된다.

108호의 경우 가야 나무덧널무덤 중 가장 온전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나무덧널의 구조와 유물의 부장양상 및 가야의 대외교류 연구사의 중요 학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성동고분군 내 동시기의 나무덧널무덤 중 그리 크지 않은 중소형의 나무덧널무덤임에도 불구하고 북방 대륙계 유물인 청동그릇과 청동거울, 왜계 유물인 통형동기, 청동화살촉 등이 출토된 것은 금관가야의 국제적 위상과 교역 활동이 그동안의 연구보다 훨씬 더 활발했음을 알려주는 자료로 생각된다.

또한 텅이쇠와 점토로 각각 구획된 부장공간과 인골의 출토양상으로 미루어 부부가 나란히 매장되었을 가능성과 혹은 피장자와 순장자를 나란히 배치한 사례일 수도 있으며 이는 가야 나무덧널무덤 중 첫 사례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동아시아교역의 가교, 대성동 고분군』, 김해시.
 심재용, 2019, 『금관가야 고분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보고서〉

경성대학교박물관, 2000~'10, 『김해 대성동 고분군』 I~IV.
 대성동고분박물관, 2011, 『김해 대성동 고분군-68~72호분』.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김해 대성동 고분군-73~84호분』.
 대성동고분박물관, 2015a, 『김해 대성동 고분군-85~91호분』.
 대성동고분박물관, 2015b, 『김해 대성동 고분군-70호주곽·95호분』.
 대성동고분박물관, 2016, 『김해 대성동 고분군-92호분~94호분·지석묘』.



함천 옥전 고분군 원경



합천 옥전 고분군

유적위치

본 유적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9-3번지 일원으로 합천 옥전 고분군 내에 위치한다. 합천 옥전 고분군은 북쪽의 고사리산(해발 197m)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해발 50~80m)에 입지하며, 이번 발굴조사구역은 현재 정비·복원되어 있는 고분들의 북동쪽에 해당된다. 또한 주변으로 상포리 고분군, 다라리 고분군, 오서리 고분군, 성산토성 등 삼국시대 유적이 반경 1km 내 분포하고 있다.



1. 합천 옥전 고분군 조사 중 전경 사진



2. 합천 옥전 고분군 원경

조사 경위

합천군은 국정과제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의 일환으로 합천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가야유적을 조사하고, 가야 역사 복원을 위한 학술조사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합천 옥전 고분군의 전체 범위와 주요 유구의 분포 양상 및 성격 파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재단법인 한빛문화재연구원은 현재 정비·복원되어 있는 고총고분 밀집 구역의 북동쪽 일부 1,282㎡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

합천 옥전 고분군은 1985년 경상대학교박물관의 첫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차례 시굴조사와 5차례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180여기의 장대한 무덤과 4,000여점의 화려한 유물들이 출토되었으며, 문헌자료에서 나타나는 가야 나라국 최고 지배집단의 묘역임이 밝혀졌다. 아울러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옥전 고분군은 1988년 사적 제326호로 지정되었으며, 최근에는 합천 옥전 고분군 출토 고리 손잡이 큰 칼 4점(보물 제2042호)과 금귀걸이 6점(제2043호·제2044호·제2045호)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금번 조사대상지는 기존 1차(1985년) 발굴조사구역의 북동쪽과 2차(1987년) 발굴조사구역의 남동쪽 사이에 위치하며, 남서쪽으로 점차 낮아지다 고총고분 밀집 구역으로 다시 완만하게 높아지는 지형이다.



3. 4호 나무덧널무덤

발굴조사 결과, 나무덧널무덤 12기, 돌덧널무덤 5기 등 총 17기 무덤이 조사되었고, 금 귀걸이 9점, 목걸이 5점, 큰칼 4점, 고리 손잡이 큰 칼 7점, 미늘쇠 6점, 갑옷, 말갖춤, 주조쇠도끼, 화살통, 쇠화살촉, 쇠끌, 쇠뿔, 굽다리접시, 뚜껑, 뚜껑 있는 항아리, 긴 목 항아리, 짧은 목 항아리, 컵 모양 토기, 원통 모양 그릇받침, 바리 모양 그릇받침 등 650점 이상 유물이 출토되었다.

나무덧널무덤[木槨墓]

나무덧널무덤은 조사대상지 내 해발 70~76m 지점에서 총 12기가 확인되었다. 주축 방향은 주로 등고와 평행하는 남-북방향이나, 지대가 낮은 남쪽에는 일부 동-서 방향으로 조성되었다. 평면 잔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규모는 길이 약 2m 정도 되는 소형 나무덧널무덤부터 무려 약 8m 이상 되는 대형까지 그 규모에 따라 보강의 형태, 바닥시설, 출토유물의 양과 질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축조 방법은 먼저 지반을 굴착하여 무덤구덩이를 만든 후 나무덧널을 안치하였다. 이때 덧널을 안치하기 전, 바닥을 정리하여 그대로 사용한 것과 크기 20~35cm 정도 납작한 산돌을 2개씩 3열 배치하여 관대(목관을 놓기 위해 설치한 받침)를 시설한 것, 그리고 크기 10cm 내외 작은 산돌로 약 2/3 정도 전면 시상을 마련한 것으로 구분된다. 관대나 시상은 주로 남쪽으로 배치하고, 북쪽에는 겨문거리 공간을 마련하였다.

나무덧널은 현재 부식되어 그 규모나 구조를 확인할 수 없으나, 내부 토층의 퇴적 및 함몰 양상, 바닥 관대의 형태, 그리고 내부 출토유물의 범위를 통해 덧널의 범위를 추정하였다. 특히, 일부 덧널무덤은 바닥시설이 벽석과 약 10~15cm 정도 일정하게 이격되어 있는 것과 시상 모서리부터 일정 간격으로 쇠뿔이 출토되는 것을 통해 덧널의 범위를 추정하였다. 무덤구덩이와 덧널의 사이는 소형의 경우 흙으로 보강하였고, 중·대형의 경우 20~30cm 정도 크기의 강돌과 흙으로 함께 채워 보강하였다.



4. 4호 나무덧널무덤 출토 금귀걸이

출토유물은 금귀걸이, 목걸이(굽은옥, 구슬 등)와 같은 장신구는 주로 주검이 안치되는 남쪽에서 출토되었고, 비늘갑옷, 말갖춤(안장틀, 재갈, 띠고리, 발걸이, 말띠꾸미개, 말띠드리개 등), 화살통장식, 쇠화살촉, 쇠끌, 굽다리접시, 뚜껑, 뚜껑 있는 항아리, 긴 목 항아리, 짧은 목 항아리, 컵 모양 토기, 원통 모양 그릇받침, 바리 모양 그릇받침 등 마구류와 토기류는 북쪽 겨문거리 공간에서 출토되었다. 미늘쇠와 고리 손잡이 큰 칼의 경우 동쪽이나 서쪽으로 치우쳐 출토되었다.



5. 4호 나무덧널무덤 출토 토기 일괄



6. 4호 나무덧널무덤 출토 큰칼 일괄

한편 유일하게 도굴 피해가 없는 나무덧널무덤 4호는 내부조사 중 금귀걸이 1쌍을 비롯한 큰칼 6점이 출토되었다. 남쪽 바닥에서 금귀걸이 1쌍이 출토되어 머리 방향은 남쪽으로 추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머리 동쪽에 고리 손잡이 큰 칼 1점, 서쪽에 큰 칼 1점, 머리 동쪽에 고리 손잡이 큰 칼 1점, 세 잎 고리 손잡이 큰 칼 1점, 서쪽에 세 잎 고리 손잡이 큰 칼 2점이 나란하게 배치되었으며, 북쪽 겨문거리 공간에서 마구류와 토기류가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큰 칼 6점은 지금까지 합천 옥전 고분군 발굴조사 가운데 한 개 무덤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사례로서 합천 옥전 고분군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성과이다.

조사 결과, 나무덧널무덤의 구조는 합천 옥전 고분군의 고총고분이 등장하는 5세기 후반 이전 무덤의 형태와 유사하다. 특히 고총고분으로 대표되는 옥전 M1호분, M2호분 같이 격벽을 쌓아 으뜸덧널과 딸린덧널을 분리하는 구조는 확인되지 않고, 옥전 23호분과 같이 다소 폭 넓은 나무덧널무덤의 보강 형태, 바닥의 관대 양상이 매우 흡사하다. 아울러 굽구멍 있는 굽다리접시, 입이넓은긴목항아리, 바리모양그릇받침과 같은 토기류와 맞갖춤류, 무기류가 다량 출토되는 것을 참고하면, 대략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돌덧널무덤[石槨墓]

돌덧널무덤은 조사대상지 내 총 5기가 확인되었다. 해발 74~76m 지점에서 노출되었고, 주축 방향은 등고와 관계없이 다양하게 조성되었다. 돌덧널무덤은 길이 약 3.5m 정도 되는 세장방형 돌덧널무덤과 길이 약 5m 이상 되는 장방형 돌덧널무덤으로 구분된다. 평면 잔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그 내부 정황을 통해 돌덧널무덤의 축조 방법과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반을 굴착하여 무덤구덩이를 조성한 다음 벽석을 쌓아 올리는데, 돌덧널무덤의 규모에 따라 벽석의 축조 방법과 바닥시설의 양상이 상이하다.

장방형 돌덧널무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현재 벽석이 최대 4~8단까지 잔존하며 내부조사 과정에서 상면에 도굴 흔적이 확인되었다. 벽석은 크기 20~50cm 정도 산돌을 이용하여 내면을 정연하게 맞추어 축조하였다. 이와 같이 벽석을 정교하게 축조하는 양상은 M4호분과 M7호분의 축조 방법과 비슷하나 그 형태가 세장방형이 아닌 장방형의 형태이다. 내부 바닥시설은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길이 60cm 내외 긴 산돌을 3열 배치하였다. 가장 남쪽 관대 주변에서 금귀걸이 2점과 목걸이 1점이 출토되었고, 뚜껑, 굽다리접시, 긴 목 항아리, 짧은 목 항아리, 바리 모양 그릇받침 등 토기류가 북쪽에서 다량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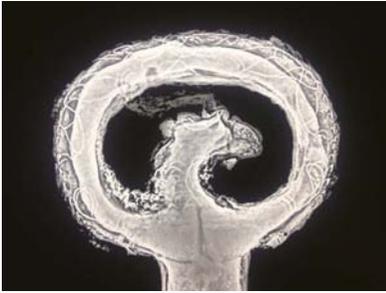


7

8

7. 8호 돌덧널무덤 조사 중 전경

8. 11호 돌덧널무덤 조사 중 전경



10. 5호 나무덧널무덤 은상감 봉황무늬 고리 손잡이 큰 칼 X-ray 촬영 사진



11. 4호 나무덧널무덤 출토 말갓총류 일괄

다음 세장방향 돌덧널무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상부가 모두 유실되었다. 벽석이 최대 1~2단 정도 잔존하기 때문에 이후 벽석의 축조 방법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하단 벽석의 특징으로 단벽에 길이 50cm 내외 긴 산돌로 면을 먼저 맞추고, 이후 크기 20~40cm 정도 작은 산돌로 세로놓혀쌓기하여 장벽을 축조하였다. 무덤구덩이와 벽석의 사이를 흙으로 보강하였으며, 내부 바닥시설은 관대나 시상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정지하여 사용하였다. 내부 북쪽에서 굽다리접시, 긴 목 항아리, 바리 모양 그릇 받침 등 나무덧널무덤의 유물보다 다소 소박하게 출토되었으며, 돌덧널무덤 8호에서 고리 손잡이 큰 칼 1점이 출토되었다.



9. 11호 돌덧널무덤 출토 토기 일괄

조사 의의

지금까지 합천 옥전 고분군에 대한 전면 제토 발굴조사는 1992년 이후 이번 정밀발굴 조사가 처음이다. 그동안 단독 고총고분 중심으로 몇 차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금번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1차, 2차 발굴조사구역 사이에 대한 각 고분의 분포 정형과 배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옥전 M3호분과 같이 한 개 무덤에서 고리 손잡이 큰 칼 4점이 출토된 이후 무려 6점이 출토된 것은 당시 옥전 고분군을 축조한 다라국의 수준과 역량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자료로 평가된다. 그리고 금귀걸이 총 9점과 목걸이 5점은 주변 가야를 넘어 신라나 백제의 위세품과 비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향후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기대된다.

최근, 가야고분군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앞서 각 가야문화에 대한 여러 방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 역사복원과 함께 가야의 실체와 범위, 주변 가야문화와 교류 등 다라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진주 기좌동 고분군 조사후 전경



진주 가좌동 고분군

진주시는 남강을 중심으로 진주 대평유적, 평거동 유적, 가호동 유적, 초전동 유적 등 선사시대부터 대규모 마을과 묘역이 조성되었다. 삼한시대에 들어서 변한 12개의 소국 중 하나였다가, 가야 6국 중 고령가야 또는 포상팔국(浦上八國)과 관련된 가야 소국으로 발전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백제가 점령하여 거열성이었다가 통일신라시대에는 거열주, 청주, 강주로 개칭되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서 최초로 진주로 개칭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진양대도호부로 승격된 이후 계속 지방행정의 중심지였다. 이로 보아, 진주시는 자연환경과 지리·군사적 이점으로 선사시대 이전부터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1. 진주 가좌동 고분군 원경



2. 조사 중 전경

진주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마을, 묘역, 관방시설, 생산시설 등 다양한 유적이 조영되었는데, 가야와 관련된 유적은 164개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야유적 중 지배세력과 관련된 중심고분으로 진주 가좌동 고분군과 수정봉·옥봉고분군이 대표적이다. 남강을 따라 가좌동 유적과 가호동 유적, 개양 유적, 평거동 유적, 동섬들 유적 등의 마을과 경작지가 조성되었다.

진주 가좌동 고분군은 신진주역 북서쪽 위치한 무덤산(해발 64.7m)의 정상부에서 북쪽과 동쪽의 완만한 사면에 조영된 가야 고분군이다. 고분군이 조영된 무덤산의 남쪽 사면을 따라 가야의 마을과 고분군이 조영되었고, 무덤산 맞은편인 북쪽의 구릉에서는 덧널무덤과 돌덧널무덤으로 이루어진 묘역과 주거지, 가좌천변에는 경작지와 주거지가 조영되었다. 동쪽의 평탄지에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의 경작지와 주거지, 서쪽으로는 가좌동 유적①·② 등이 분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가좌동 일대의 구릉에는 가야의 묘역과 마을, 평탄지에는 마을과 경작지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좌동 고분군은 일제강점기의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최초로 기록되었다. 1977년 진주시 일원에 대한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고분군의 현황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88년 경상대학교박물관에서 최초로 가좌동 고분군에 대한 발굴이 실시되었다. 이후, 고분군의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행위로 인해 지표조사와 시굴·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무덤산 일대에 가좌동 고분군이 조영되었고, 사면과 말단부에 조성된 마을은 묘역 축조세력과 연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가좌동 고분군은 원형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2017년 고분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밀지표조사과정에서 봉분으로 추정된 11기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11기 중 6기가 봉분임을 판명하였다. 아래의 [표 1]은 현재까지 조사현황과 조사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1) 고분군은 수정봉과 옥봉의 구릉정상부에 대형 봉토분 7기가 분포하였고, 7기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수정봉 2·3호분, 옥봉 7호분 등 3개의 봉토분이 발굴조사 되었으며, 조사결과는 「조선고적도보」에 실측도면과 간단한 기록이 실려있다. 조사결과, 매장주체부는 굴식돌방무덤이고 내부에서는 토기류와 등자, 사형상철기, 농공구, 무기류 등이 출토되었고, 조성연대는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고 있다. 석실의 구조나 축조방법은 백제적인 요소가 많고, 토기류는 대가야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백제적인 요소도 일부 확인된다. 이로 보아, 고분의 조영 시기는 진주나 후기가야에서 백제의 영향권에 들어간 역사적 사실과 일부는 일치하고, 당시의 지배세력에 의해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1] 현재까지 조사현황과 조사내용

| 조사 | 조사기관 | 조사연도 | 조사내용 |
|-------------------|-------------------|------|---|
| 지표 ²⁾ | 문화재관리국 | 1977 | - 가좌리 일원에서 삼국시대 고분 10여기가 산재했으나 일제 강점기에 도굴 파괴됨. |
| 발굴 ³⁾ | 경상대학교 박물관 | 1988 | - 총 4기(봉토분 1기와 주변 3기) - 매장주체부: 돌덧널무덤, 출토유물: 토기류, 철기류. - 무덤구조와 출토유물로 보아 5세기 후반~6세기 조성. |
| 지표 ⁴⁾ | " | 2003 | - 개양역 북쪽의 해발 50m 아산에 가야 묘역이 조성됨. - 매장주체부는 돌덧널로 추정되나, 대부분 도굴되며 일부는 노출됨. |
| 지표 ⁵⁾ | 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 | 2007 | - 무덤산 구릉 일대를 따라 다수의 고분이 산재할 것으로 추정. - 오랜기간 도굴된 것으로 파악됨. |
| 발굴 ⁶⁾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6 | - 가좌동 고분군의 남사면(36,242㎡) 조사. - 가야 돌덧널무덤으로 이루어진 묘역과 27동의 구덩식주거지 확인. - 유적은 가좌동 고분군에 포함되며, 축조집단의 성격과 위상 및 묘역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 |
| 지표 ⁷⁾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7 | - 원형보존구역인 가좌동 고분군의 잔존상태와 분포도를 작성함. - 11기의 봉토분과 다수의 돌덧널무덤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함. |
| 발굴 ⁸⁾ | 경상 문화재연구원 | 2017 | - 가좌동 고분군의 맞은편 북쪽 구릉과 무덤산 북쪽 구릉말단부 조사. - 덧널무덤과 돌덧널무덤으로 구성된 가야 묘역과 구덩식주거지가 조사됨. - 무덤에서 토기류와 무구, 금귀걸이 등이 출토됨. |
| 시굴 ⁹⁾ | 극동 문화재연구원 | 2019 | - 2017년 정밀지표조사에서 확인된 11기의 봉토분 중 1·2·3·6호분을 대상으로 하였고, 모두 봉토분으로 판명됨. |
| 발굴 ¹⁰⁾ | 극동 문화재연구원 | 2020 | -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1호분을 대상으로 발굴조사. - 봉토분 중 미조사된 7기에 대한 시굴조사에서 2기만 봉토분으로 판명됨. - 시굴조사결과, 6기가 봉토분으로 판명됨(1·2·3·5·6·7호). |

2)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

3) 경상대학교 박물관, 1989, 『진주 가좌동 고분군』.

4) 경상대학교박물관, 2003, 『문화유적분포지도 -진주시-』.

5)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7,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지표조사 보고서』.

6)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8, 진주 『가좌동 고분군과 취락』.

7)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 『가좌동 고분군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8) 경상문화재연구원, 2017, 『진주 가좌동 산 39-6번지 유적』.

9) 극동문화재연구원, 2019, 『진주 가좌동 고분군 시굴조사 약보고서』.

10) 극동문화재연구원, 2019, 『진주 가좌동 고분군 (1·2·3·6호분)기저부 시굴조사 약보고서』.

2020, 『진주 가좌동 고분군 복원정비사업부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3. 조사 전 전경(북-남)



4. 조사 후 전경(북-남)



5. 가좌동 고분군 1호분 조사 중 전경

이번 글에서는 가좌동 고분군 중 봉토분으로 판명된 6기의 고분 가운데 발굴조사를 실시한 1호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가좌동 1호분은 역사문화공원 조성부지 내 북동쪽 구릉 정상(해발 69.7m)에 위치한다. 남쪽으로 29m 떨어진 사면부에 가좌동 2호분, 동쪽으로 22m 떨어진 사면부에 가좌동 6호분, 30m 떨어진 사면부에 5호분이 조성되어 있다.

1호분은 조사 이전 봉분 중앙부가 도굴로 인해 함몰된 상태였고, 봉분 북서쪽은 탐방로가 개설되면서 일부 훼손된 상태였다. 정밀지표조사에는 봉분의 규모가 직경 14.2m, 높이 2.2m로 보고하였다. 시굴조사결과, 봉분의 판명과 축조양상, 주구, 딸린무덤(배장묘)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6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 봉분과 매장주체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시굴트렌치, 도굴갱 및 주변부 정리 → 기준 득 설정 및 봉분 토층조사 → 봉분 내부조사 → 매장주체부 조사(유물수습, 시상 및 정지층 조사) → 보완조사 및 주변부 조사 순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가좌동 1호분은 완만한 자연경사면에 묘역을 선정·정지한 후, 원형의 봉분 안에 5기의 돌덧널무덤과 1기의 돌널무덤이 축조된 여러 널식 봉분임이 확인 되었다. 봉분의 잔존규모는 동-서 길이 12.3m, 남-북 길이 13.3m, 높이 1.96m이다.

봉분은 크게 6단계의 공정으로 조성되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6단계의 고분 축조과정

1 단계

묘역의 선정 및 조성단계로 원형보존구역 북동쪽 구릉의 정상부에 묘역을 선정한 후 묘역의 중앙부는 수평상으로, 그 바깥쪽은 봉분의 형태에 맞게 경사지게 굴착·정지하여 묘역을 조성하였다.

2 단계

봉분의 1차 외형과 주구 설치단계이다. 1단계의 묘역 굴착·정지 과정에서 확보된 풍화암반편이 뒤섞인 황갈색토를 성토하여 봉분의 1차 외형을 완성하였다. 이때, 경사면이 높은 봉분의 서쪽을 중심으로 좌우의 북쪽과 남쪽 봉분까지 도랑을 설치하였다.

3 단계

1-1호분 축조한 후 봉분 외형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봉분의 1차 외형을 만든 후, 봉분의 중앙부를 다시 굴착하여 1-1호분을 조성하였다. 1-1호분은 묘광 내부에 매장주체부로 돌덧널을 축조하였고, 피장자와 꺼묻거리를 안치한 후 개석을 덮었다. 개석 상부로 성토하여 봉분의 외형을 완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4 단계

1-2호분과 1-3호분을 축조하는 단계로 1-1호분과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다. 3단계에 완성된 봉분의 동쪽과 서쪽을 굴착하여 동쪽에는 1-2호분을, 서쪽에는 1-3호분을 축조한 후, 다시 봉토분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5 단계

1-4호분과 1-5호분을 축조하는 단계로, 1-4호분은 1-1호분의 남서쪽, 1-5호분은 북동쪽에 위치한다. 1-4호분은 1-1호분의 서장벽과 남단벽 일부, 1-3호분의 남단벽 일부, 1-5호분은 봉분의 북쪽 일부를 굴착하여 축조한 후, 봉분의 외형을 다시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6 단계

1-6호분 축조하는 단계이다. 이전 5단계까지의 1-1~1-5호분이 돌덧널무덤인 반면, 1-6호분은 돌널무덤으로 묘제가 달라지며, 1-1호분과 1-2호분 사이에 위치한다.

이상과 같이 가좌동 1호분은 1-1호분을 비롯하여 모두 5기의 돌덧널무덤과 1기의 돌널무덤이 순차적으로 축조된 봉토분으로 봉토조성 및 주구 설치, 매장주체부의 조성 등 크게 6단계의 공정으로 구분된다. 매장주체부는 1-1호분 조성 이후 추가장이 이루어지고, 1-6호분은 앞선 묘제와 달라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봉분은 조사 이전에 도굴과 탐방로 개설 등으로 봉분 상부가 대부분 훼손된 상태였고, 봉분의 중앙부가 함몰되어 봉분의 정확한 축조방법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한편, 외곽에 설치된 주구는 봉분의 경사가 높은 서쪽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 봉토 자락을 감싸듯이 평면형태 반원형으로 설치하여, 빗물에 의한 봉토의 유실 및 매장주체부의 훼손을 막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구의 단면형태는 완만한 'U'자상이고, 너비는 1.8~1.4m, 깊이는 0.15m내외이며, 주구 내부에 출토되는 토기편으로 보아, 제의가 이루어졌던 흔적으로 판단된다.



6. 1-호분 피장자의 발치쪽 유물 출토 상태

1-1호분은 봉분의 중앙부에 만들어진 돌덧널무덤으로 평면형태는 세장방형(6:1)이며, 규모는 길이 5.4m, 폭 0.9m, 높이 1.7m정도이고, 주곽에 해당한다. 상부의 개석은 대부분 유실되어 1매(길이 1.62m, 높이 0.56m, 두께 0.2m)만 확인되었으며, 매장주체부 내부는 봉분과 교란토로 함몰된 상태였다. 돌덧널무덤의 양장벽은 크고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가로놓혀쌓기 또는 세로놓혀쌓기를 섞어서 사용하였고, 최상단석은 세로쌓기로 마무리 하였다. 양단벽은 1매의 판석으로 가로누워쌓기하여 그 위로 2~3매의 판석 또는 할석을 쌓아 마무리하였다.

유물은 과거에 이루어진 도굴로 인하여 부장 당시의 모습이 훼손되기는 했으나, 출토상태로 보아 피장자의 좌우에는 큰 칼과 쇠화살촉 등 무구류, 머리쪽과 발치 쪽에는 토기류를 주로 부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피장자의 머리쪽과 발치 쪽에는 유구의 바닥 위에 얇은 점관암 수매를 깔아서 길이 1.5m, 너비 0.9m 정도 크기의 부장공간을 확보한 후 그 위에 덮개 있는 굽다리접시와 바리 모양 그릇받침, 덮개 있는 목 긴 항아리, 그릇받침, 큰 칼 등 30점에 이르는 토기류를 부장하였다.



7. 1-2호분 조사 중 전경



8. 1-2호분 유물 출토 상황



9. 1-3호분 조사 중 전경

1-2호분은 봉분 동쪽에 축조된 돌덧널무덤으로 평면형태는 세장방형(5.3:1)이며, 크기는 길이 4.3m, 너비 0.8m, 높이 0.8m 정도이다. 축조방법은 1-1호분 축조 후 마감한 봉토의 동쪽 성토층을 굴착하여 1-1호분의 동쪽에 나란하게 축조하였다. 돌덧널의 양장벽은 1-1호분과 비슷하게 세로쌓기와 가로쌓기를 교대로 하여 쌓았고, 양단벽은 판석으로 세워쌓기로 완성하였다.

유물은 양단벽에 토기류가 부장되었고, 북단벽에는 덮개 있는 목 긴 항아리와 바리 모양 그릇받침, 덮개 있는 긴 목 굽다리항아리, 덮개 있는 손잡이 붙인 사발, 서단벽쪽에서 뚜껑 있는 굽다리 접시와 바리 모양 그릇받침 다리편 등 모두 5건 10점이 출토되었다.

1-3호분은 봉분 서쪽에 축조된 돌덧널무덤으로, 평면형태는 세장방형(4.3:1)이며, 크기는 길이 1.7m, 너비 0.4m, 높이 0.4m 정도이다. 축조방법은 1-1호분 축조 후 마감한 봉토의 서쪽 성토층을 굴착하여 1-1호분의 서쪽에 나란하게 축조하였는데, 1-4호분의 조성과 도굴로 인해 개석과 서단벽이 유실되었다. 축조방법은 모판을 굴착한 후 양장벽과 양단벽은 얇은 판석으로 눕혀쌓기하고 그 위에 할석으로 가로쌓기한 후, 개석을 덮어서 완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물은 북쪽 단벽에 가까운 동장벽에서 쇠화살촉 1점, 중앙부에서 작은 항아리 1점, 서단벽쪽에서 뚜껑 접시 1점 등이 출토되었다.

1-4호분은 1-1호분과 1-3호분의 벽석을 파괴하고 축조한 돌덧널무덤으로, 평면형태는 세장방형(4.5:1)이며, 크기는 길이 2.7m, 너비 0.6m, 높이 0.3m 정도이다. 도굴로 인하여 개석과 측벽석은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며, 판석으로 쌓은 양장벽 일부와 바닥에는 시상으로 추정되는 크기 5~20cm 내외의 할석이 깔려있다. 1-4호분은 도굴로 인한 훼손이 심하여 원형태나 구조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유구 중복상태로 보아 1-1·1-3호분 축조 이후, 봉토를 재굴착하여 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1-5호분은 1-1호분의 동쪽에 축조된 돌덧널무덤으로 1-4호분과 축조방향이 유사하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3.4:1)이며 크기는 길이 1.7m, 너비 0.5m, 높이 0.5m 정도이다. 축조방법은 도굴로 인해 개석과 측벽석이 대부분 유실된 상태에 판석과 할석으로 쌓은 양장벽의 일부만 남아 있어 자세한 방법은 알기 어려우나, 1-4호분과 축조방향이나 구조가 비슷하다. 유물은 돌덧널 중앙부에서 바닥이 편평한 목 짧은 항아리 1점이 출토되었다.

1-6호분은 1-1호분의 동쪽에 축조된 돌널무덤으로 평면형태는 세장방형(4:1), 크기는 길이 0.8m, 너비 0.2m, 높이 0.4m 정도이다. 축조방법은 개석과 양장벽석, 바닥석은 1매의 점관암, 양단벽석은 1매의 할석을 정교하게 가공하였고, 바닥석→양단벽→양장벽→개석으로 순으로 쌓았다. 유물은 북단벽과 서장벽이 맞물리는 서북쪽 모서리에서 덮개 있는 바닥이 편평한 목 짧은 항아리가 출토되었다. 1-5호분의 묘광 일부를 파괴하여 축조한 것으로 보아, 가좌동 1호분의 가장 마지막에 축조한 무덤으로 판단되지만, 묘제의 구조나 크기가 선대의 1-1호분~1-5호분과 확연하게 다르다.

이상과 같은 가좌동 1호분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1호분은 주곽을 조성하여 봉분을 설치한 후, 다시 봉분을 굴착하여 추가로 세장방형의 매장주체부를 축조한 여러곽식 봉분임이 밝혀졌다. 이는 대가야나 아라가야의 여러널식 봉분과는 그 구조를 달리하며, 합천 삼가고분군과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과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한편, 가좌동 고분군과 함께 진주지역 지배세력의 고분군인 수정동·옥봉고분군의 매장주체부가 백제의 영향을 받은 굴식돌방무덤인 반면, 가좌동 고분군은 전대의 묘제인 세장방형의 구덩식돌덧널 무덤을 채용하였다. 가좌동 고분군의 축조세력이 경남 서부지역 가야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하였고, 백제가 진주지역을 점거하기 이전의 지배세력의 무덤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10. 1-5호분 조사 중 전경



11. 1-6호분 조사 중 전경

참고문헌

〈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
 경상대학교박물관, 1989, 「진주 가좌동 고분군」.
 경상대학교박물관, 2003, 「문화유적분포지도」, -진주시-.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2007,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지표조사 보고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 「가좌동 고분군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경상문화재연구원, 2017, 「진주 가좌동 산 39-6번지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8, 「진주 가좌동 고분군과 취락」.
 극동문화재연구원, 2019, 「진주 가좌동 고분군 시굴조사 약보보고서」,
 2019, 「진주 가좌동 고분군(1·2·3·6호분)기저부 시굴조사 약보보고서」,
 2020, 「진주 가좌동 고분군 복원정비사업부지 발굴조사 약보보고서」.



12. 진주 가좌동 고분군 원경

또한 돌덧널 내부에 부장된 유물은 진주와 산청, 고성 등지에서 주로 출토되는 이른바 소가야 양식 토기를 비롯하여 대가야계·백제계·신라계 양식의 토기가 혼재되어 출토된다. 이로보아 진주지역은 가좌동 1호분이 축조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의 진주지역은 남강상류의 대가야와 남해안의 소가야를 비롯한 여러 가야와 호남의 영산강유역, 일본열도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배경으로 진주지역의 가야세력이 성장·발전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가야에 대한 기록은 백제나 신라 혹은 왜의 역사 중에 단편적으로 언급된 정도로 가야사는 항상 주변국의 관심과 입장에 의해 왜곡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가야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 성과가 급증하면서 가야의 자체적인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결과, 삼국시대의 역사에서 가

야의 역할이나 비중이 결코 작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지고 있다. 진주 가좌동 고분군 발굴조사도 이러한 가야의 한 역사적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의미를 지닌 조사라 생각된다.

끝으로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진주 가좌동 고분군이 5~6세기 진주지역 가야세력의 지배층과 일반인이 문헌 공동묘역임을 밝힘으로써, 남강상류와 남해안의 여러 가야, 그리고 백제와 신라, 바다 건너 왜를 잇는 인적·물적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했던 가야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고 천년고도 진주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수레바퀴모양토기

수레바퀴모양토기 또는 차륜형토기(車輪形土器)로 불리는 이 상형토기는 아라가야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토기가 되었다.

아라가야의 옛 고도 함안에는 아라가야 사람들이 남긴 옛 흔적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수많은 유적 중 함안 말이산 고분군은 아라가야 왕과 귀족들이 묻힌 무덤으로 완만한 구릉 위에 37기의 대형 고분들이 열을 지어 위치해 있다. 그 중 함안 말이산 4호분(구 34호)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도에 이마니시 류에 의해 조사되었는데 무덤 내부에서 불꽃무늬토기, 큰 항아리를 비롯한 120여점의 토기와 큰 칼, 말갑옷 조각 등 화려한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아라가야를 대표하는 유물인 수레바퀴모양토기도 있었다. 수레바퀴모양토기는 차륜형토기로 불리는 상형토기(사물을 본떠 만든 토기)로 아라가야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상징적인 토기이다. 국립김해박물관에서는 '일제강점기자료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함안 말이산 4호분의 출토품을 재정리하여 정식으로 보고서를 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수레바퀴모양토기의 부서진 파편을 찾아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하였다.



• 국립진주박물관 소장품 [출처 : 국립진주박물관]

수레바퀴모양토기는 양 옆에 수레바퀴를 붙이고 다양한 형태의 굽다리에 뿔잔, 잔 등을 올린 형태이다. 함안 말이산 4호분 출토 품은 양쪽이 뿔린 뿔잔의 원통을 'V'자로 구부리고 중앙에 구멍을 뚫고 나팔모양의 주입구를 접합하였다.

뿔잔 속은 비어있어 양쪽이 주출구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굽다리는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도록 하고 중간에 돌출된 띠를 두른 다음 장방형의 구멍을 대칭되게 2개 뚫었다.

수레바퀴는 뿔잔 양쪽에 축을 만들어 결합한 다음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의 끝부분이 넓어지도록 마무리 하였다. 바퀴는 장방형의 구멍을 내어 8개의 바퀴살을 표현하였고, 일제강점기에 직물을 덧붙여 복원한 흔적이 남아 있다.



· 함안 말이산 4호분 출토 수레바퀴모양토기 [출처 : 국립김해박물관]



•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말을 탄 가야"에 전시된 수레바퀴모양토기 일괄



•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말을 탄 가야"에 전시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이밖에 알려진 수레바퀴모양토기는 국립진주박물관 기증품, 국립중앙박물관 구입품이 대표적이다. 국립진주박물관 기증품도 'V'자로 구부린 뿔잔과 굽다리, 바퀴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독특한 점은 뿔잔에 주구부가 없고 양쪽의 주출구만 있다. 또한 뿔잔에 고사리모양 장식을 달았는데 부서진 흔적을 통해 원래는 양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굽다리에는 띠를 돌려 3단으로 나누고 하단을 제외하고 각 단에 세장방향의 구멍을 단 마다 엇갈리도록 4개씩 뚫었다. 바퀴는 사다리꼴의 구멍을 내어 6개의 바퀴살을 표현하였고, 뿔잔에 축을 만들어 바퀴가 돌아가도록 결합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구입품은 똑같이 만든 2점이다. 뿔잔 보다는 컵 모양에 가까운 용기를 U자 모양으로 배치하였고, 하단부에는 '∞'자 모양으로 두 용기를 서로 감고 있다. 굽다리에는 장방형의 긴 구멍이 뚫려 있고, 2개 뚫은 것과 4개 뚫은 것으로 나뉜다. 바퀴는 제형의 구멍을 4개씩 뚫어서 바퀴살을 표현하였다.

발굴조사 출토품으로는 함안 도항리 428-1번지 18호, 함안 도항리 39호, 김해 봉황동 유적, 남원 청계리 청계 고분 2호 돌덧널무덤에서 발굴된 바퀴편이 대표적이다.

가야인들이 남긴 수레바퀴모양 토기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주로 고분에서 발굴된 사례가 많아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수레를 타고 안전하게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유물로 생각된다. 또한 뿔잔이 달려있어 주전자와 같이 용기의 기능을 함으로써, 장송의례 과정에서 물이나 술을 담는 제기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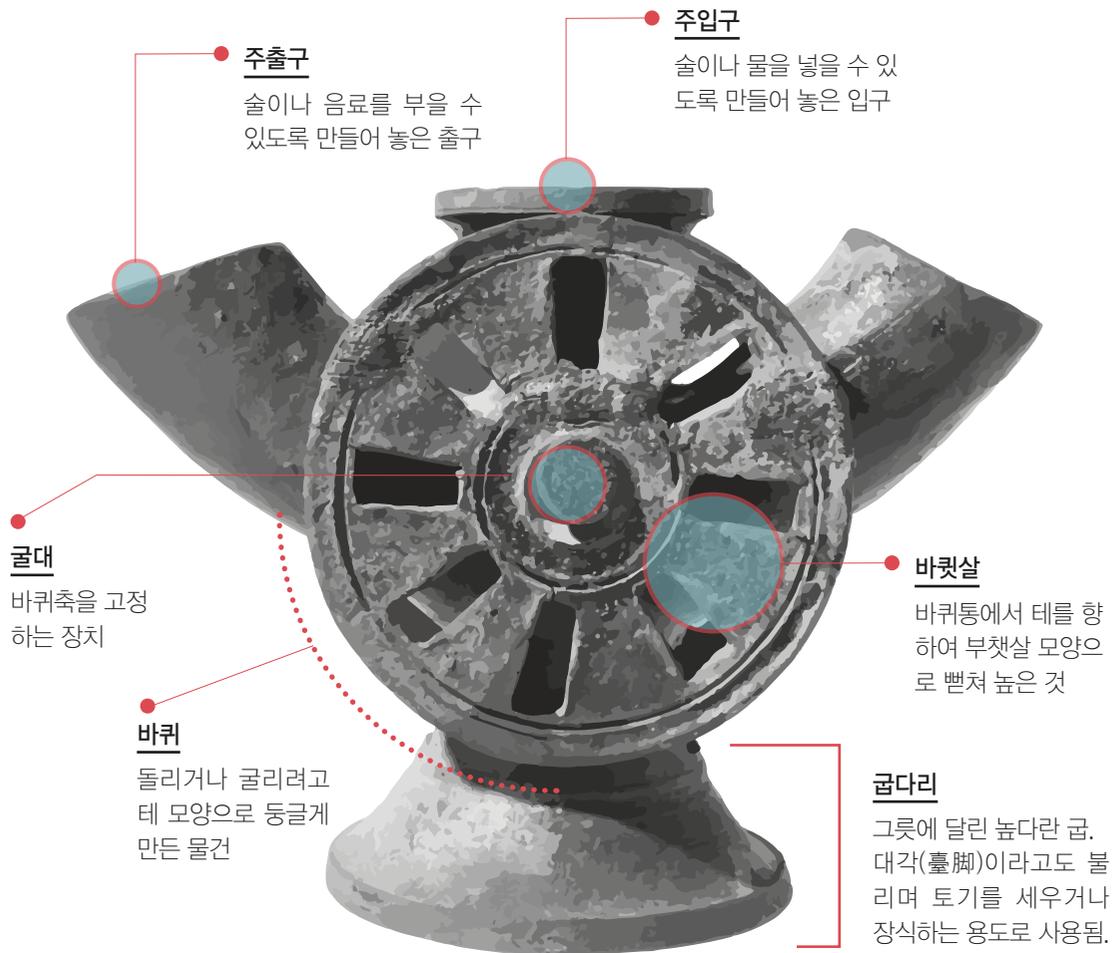
수레바퀴모양토기를 보면 제의행위 뿐만 아니라 가야인들의 생활 모습도 상상할 수 있다. 오늘날 함안에서 확인되는 큰 고분이나 성벽을 만들기 위해 돌과 흙을 수레에 담아 나르는 모습, 함안 우거리에서 생산된 토기를 수레를 이용하여 선착장까지 옮기는 모습, 수레를 타고 옆에 마을에 놀리가는 모습 등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다. 박물관에서 수레바퀴모양토기를 보며 가야인이 되는 상상을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車輪形土器

수레바퀴모양토기의 명칭



주출구를 고사리문양으로
장식한 진주박물관 소장
수레바퀴모양 토기



주출구
술이나 음료를 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출구

주입구
술이나 물을 넣을 수 있
도록 만들어 놓은 입구

쿨대
바퀴축을 고정
하는 장치

바퀴
돌리거나 굴리려고
테 모양으로 둥글게
만든 물건

바퀴살
바퀴통에서 테를 향
하여 부챗살 모양으
로 뻗쳐 높은 것

굽다리
그릇에 달린 높다란 굽.
대각(臺脚)이라고도 불
리며 토기를 세우거나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됨.



[출처 : 국립김해박물관]

보물이 된 가야의 유리 세공 목걸이

以瓔珠爲財寶，或以綴衣爲飾。
或以縣頸垂耳，不以金銀錦繡爲珍。

구슬을 귀하게 여겨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하지만, 금·은과 수놓은 비단은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

三國志〈魏書 30 東夷傳〉韓



• 김해 대성동 76호 출토 목걸이 [출처 : 대성동고분박물관]

현대 사람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때, 격식 있는 중요한 자리에 참석 할 때 여러 악세사리를 이용하여 돋보이게 치장을 한다. 그 중에 목걸이는 우리 신체 중 가장 잘 보이는 가슴을 장식하는 장신구로 가야 사람들이 애정했던 악세사리 중 하나이다. 『삼국지』의 『위서동이전』에서 구슬을 목에 걸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가야고분을 조사할 때도 유리나 다양한 광물을 세공한 구슬로 엮은 목걸이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목걸이를 사랑한 가야 사람들은 그들이 사후세계로 떠날 때 조차 아끼던 목걸이를 착용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문화재청은 2020년 10월 21일 가야의 유리 세공 목걸이 3점을 보물로 지정하였다. 보물이 된 유리목걸이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 출토품 1점(보물 제2081호)과 김해 양동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목걸이 2점(보물 제2082호, 보

물 제2083호)으로, 이들 유물이 보물로 지정되게 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김해 대성동 76호 출토 목걸이는 길이가 다른 세 줄의 목걸이가 한 세트로 확인되었다. 목걸이는 맑고 투명한 수정¹⁾제 구슬 10알, 주황색 마노²⁾제 구슬 77알, 푸른색의 유리제 구슬 2,386알로 구성되어 총 2,473개의 아름다운 구슬이 꿰어져 있다. 금관가야 유적에서 출토된 목걸이 중 가장 많은 수량의 구슬로 꿰어진 목걸이로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또한 다양한 재질과 색감을 조화롭게 구성하고, 유리를 굵은옥이나 다면체의 형태로 섬세하게 가공한 점과 세밀하게 구멍을 뚫고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등 당시의 미적 감각과 세공기술을 여감 없이 발휘한 훌륭한 작품이다.

1) 수정 투명하며 강한 유리 광택을 가진다. 석영 중에서 순수한 이산화규소(SiO₂)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수정 내에 포함된 미량의 원소에 의해 자수정과 같이 보라색을 띠기도 한다.

2) 마노 수정과 같은 석영광물로, 원석 모양이 말의 뇌수(머릿골)를 닮았다고 해서 마노라고 부른다. 빛깔이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붉은색과 황색으로 나뉜다.



• 김해 양동리 270호 출토 수정 목걸이 확대 [출처 :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양동리 270호 출토 수정목걸이는 여러면구슬 20알과 주판 모양옥 120알, 곱은 옥 6점으로 총 146개의 수정으로 이루어진 매우 드문 사례로 희소가치가 크다. 전체길이는 약 142.6cm로 육각 다면체 모양, 주판 모양, 곱은 옥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수정을 세공하여 연결하였다. 맑고 투명한 무색과 황색, 갈색 등이 약간 섞인 은은한 색의 수정을 매끈하게 다듬고, 형태와 크기가 다른 수정알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조형성이 매우 뛰어나다. 오늘날의 세공기술과 견주어도 될 만큼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



• 김해 양동리 322호 출토 수정 목걸이 [출처 :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양동리 322호 출토 목걸이는 수정제 곱은 옥 147알, 대형 수정제 여러면구슬 2알, 주황색 마노 등근옥 6알, 파란색 유리 등근옥 418알, 파란색 유리 곱은 옥 1알 등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총 574점의 수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도 7의 단단한 수정을 다면체로 가공하고 곱은 옥 형태로 섬세하게 다듬어 가야인의 세공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투명한 수정을 육각형으로 다듬었으며 붉은색 마노와 푸른색 유리옥을 더하여 영롱한 빛으로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정제 곱은 옥과 유리제 곱은 옥이 한꺼번에 발견된 희귀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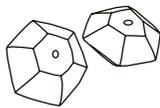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목걸이 3건은 출토지가 명확하고, 많은 수량의 구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희귀한 사례로 손꼽힌다.

또한, 가야 사람들이 가진 보석세공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며, 다채로운 색채와 조형미가 뛰어나 금관가야 지배층의 복식문화를 대표하는 장신구로 가치를 인정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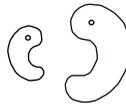
• 김해 양동리 322호 출토 목걸이 근경 [출처 : 국립김해박물관]

다양한 형태의 구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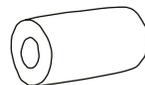
여러면구슬 다면옥, 多面玉

고대에 장신구로 쓰던, 면이 여럿인 구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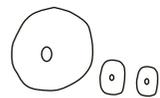
굽은옥 곡옥, 曲玉

심표를 확대한 것처럼 생겼으며 동물의 이빨 모양에서 생겨난 형태라고 한다.



대롱옥 관옥, 管玉

구슬 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형태로, 대롱모양의 구슬이다.



둥근옥 환옥, 丸玉

끈에 꿰 수 있게 가운데 구멍이 뚫린 작은 공 모양의 둥근 옥으로, 가장 보편화된 구슬 형식이다.

대가야왕릉전시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 대가야박물관

관람요금

| 구분 | 개인 | 단체 | 미취학 아동 및 경로 무료 |
|-------|--------|------|-------------------|
| 일반 | 1,000원 | 800원 | |
| 학생·군인 | 700원 | 500원 |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무료관람

관람시간 (※ 전시관 입장시간 관람종료 30분전)

하절기 3월 ~ 10월 : 오전 09:00~18:00

동절기 11월 ~ 2월 : 오전 09:00~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대가야왕릉전시관 전경

소장이란?

한 집단의 지배층 계급에 속하는 인물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뒤를 따라 강제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죽은 사람을 함께 묻는 장법(葬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지산동 44호분

1977년 경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 되었으며 주산의 구릉 능선 정상부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무덤의 규모는 지름 25×27m, 높이 6m 정도이며 으뜸돌방(주곽) 1기와 딸린돌방(부곽) 2기, 순장덧널을 32기로 구성되어 있다. 지산동 44호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확인된 최대 규모의 순장무덤이다. 순장된 사람은 1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남자와 여자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딸, 형제자매가 함께 순장되기도 했다. 꺼문 거리는 토기종류로 굽다리접시, 긴목항아리, 그릇받침, 뚜껑접시와 뚜껑 등이 대표 기종이다. 무기는 큰칼, 쇠창, 고리자루큰칼, 투구 등이 확인되었으며, 말갖춤과 각종 장신구를 비롯하여 대가야의 대외교류를 확인 할 수 있는 유물인 금동그릇, 등잔, 은장식 쇠창, 일본 오키나와의 아광조 개국자 등이 출토 되었다.

고령 대가야왕릉전시관은 지산동 44호분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0년도에 고령군에서 만든 전시관이다.

내부 중앙에는 44호분에서 확인된 무덤 구조를 재현하여 대가야인이 고분을 축조할 당시 상황을 흥미롭게 전시해놓았다. 무덤의 주인이 안치된 공간인 으뜸돌방 1기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딸린돌방 2기, 순장덧널 32기를 그대로 배치함은 물론 출토유물의 상황도 조사 당시 상황과 동일하게 배치해 두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조사 현장을 현실감있게 재현해 두어 대가야의 찬란한 고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시실 가장자리에는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대한 설명과 현재까지 진행된 발굴 조사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실 가장자리를 따라 걸다보면 44호분에서 출토된 다양한 토기와 철의 나라 가야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무기류, 말을 꾸미는 말갖춤, 금과 옥, 유리구슬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장신구를 비롯해 44호분에서 확인된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무덤의 축조과정을 디오라마로 표현하여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으며, 대가야

의 왕비, 귀족, 서민이 입었던 복식을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해 놓았다.

야외전시실에는 대가야의 철 생산 기술을 알아보기 위해 고대의 방법으로 제철로를 만들어 실험한 모형이 있다. 이 실험은 2005년 KBS 방송국에서 제작한 역사스페셜에서도 방영이 되었다.

왕릉전시관 맞은편에는 지산동 30호분이 정비되어 있다.

전시관의 뒤편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밀집되어 있는 고분군을 확인할 수 있다. 주산 정상부에 올라 남쪽에 위치한 대가야 왕릉 전시관을 바라보면 주산의 능선을 따라 조영된 아름다운 지산동 고분군을 조망할 수 있다.

디오라마 전시 모습 [출처 : 대가야왕릉전시관]



국립경상대학교 박물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11동

관람료 무료

관람시간

월요일 ~ 토요일 9:00~18:00

※ 토요일은 점심시간(12:00~13:00) 휴관

휴관일

일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10월 20일),

학교에서 정하는 휴관일



국립경상대학교 박물관 전경

국립경상대학교박물관은 1984년에 개관하여 2000년도에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었으며 2018년 박물관을 신축하여 재개관 하였다. 국립경상대학교박물관은 서부경남권의 선사, 고대문화를 조사·연구하는 전문기관으로 연구성과를 전시와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된다. 상설전시실의 초입부에는 서부 경남지역에서 확인된 선사시대유적 출토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진주 개곡면 마진리, 지수면 승내리 임계마을 등에서 수집된 땃석기와, 산청 옥산리 유적, 대평면 내촌리 유적, 진주 장흥유적 등에서 발굴된 다양한 형태의 구석기시대 유물과 진주 대평리, 상촌리, 평거동, 통영 연대도·옥지도, 합천 봉계리 유적 등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국립경상대학교박물관은 서부 경남지역의 청동기시대 기원을 논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 청동기시대 유적인 본촌리 유적, 대평리 옥방유적 출토유물을 비롯하여 국내 유일의 동검 암각화, 국내 최대크기의 붉은간토기 등 다종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상설전시실의 하이라이트는 다라국 전시실이다. 경상대학교박물관은 1985년부터 1991년까지 5차례에 걸쳐 합천 쌍책면 성산리 옥전마을에 위치한 합천 옥전 고분군을 발굴조사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111기의 매장유구와 2000여점이 넘는 중요 유물들이 출토되었으며 가야사 연구의 대표적인 고분군으로, 1987년에 사적 326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조영된 고분군 안에서는 각종 토기류와 무구류, 용과 봉황무늬 고리 손잡이 큰 칼을 비롯한 무기류, 금동제관모와 같이 무덤 주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다라국 전시실은 합천 옥전 고분군에서 출토된 다종다양한 유물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2019년에는 합천 옥전 고분군에서 출토된 용과 봉황무늬 고리 손잡이 큰 칼 4점과 금귀걸이 6점이 보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다라국 전시실에서는 보물로 지정된 고리 손잡이 큰 칼 2점과 금귀걸이 3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과 봉황무늬 고리 손잡이 큰 칼은 복원된 모형을 옆에 두어 실제모습을 가능하게 쉽게 만들어 놓았다.

국립경상대학교박물관은 대학교 자체의 전시시설을 넘어 명실상부한 지역의 종합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립경상대학교박물관은 1층에 어린이체험관을 두어 다양한 체험학습을 제공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박물관, 창의·체험 박물관, 박물관 아카데미, 유적답사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였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연기)

상설전시실 모습 [출처 : 국립경상대학교박물관]



53년만에 간행된 창녕 계성 고분군 5호분 보고서



창녕 계성 고분군(사적 제547호)은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514호)과 함께 5~7세기 비화가야의 최고 수장층 묘역으로, 당시 창녕의 문화, 경제, 정치적 동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영취산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끝부분인 낮은 구릉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 10여기의 대형 무덤이 열을 이루고, 사면부에 중·소형분들이 위치하여 총 260여기의 봉토분이 분포한다.

1917년 처음으로 고분군의 분포도가 작성된 이후 196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계성 5호분의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최근 2018~2019년 1호분과 15호분을 조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적의 복원 정비를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계성고분군의 축조시기, 묘제, 토기양식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가야와 신라문화의 접이지대로서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2월 26일에는 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가사적 제547호로 지정되었다.

발굴조사보고서가 간행된 창녕 계성 5호분 발굴조사는 1967년 10월 11일 문화재관리국이 창녕교육청으로부터 도굴 신고를 받고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1967년 11월 26일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관심 있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학계조차도 관련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상남도도 창녕군은 가야사 복원의 일환으로 '가야유적 미발간 발굴보고서 간행사업'을 기획하고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와 함께 발간작업을 진행을 하였다. 유구 도면과 사진자료, 메모장 등의 기록물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자료협조를 받았으며, 국립김해박물관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되어 있는 출토유물을 창녕박물관에서 대여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발굴조사단의 일원이었던 강인구 교수의 논문을 참고하여 메모장 기록과 사진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2권 763페이지에 이르는 양질의 발굴 보고서를 간행할 수 있었다.

1권은 발굴보고서로 고분군과 주변 일대의 환경, 유적의 연혁, 발굴조사 보고 및 유구와 유물, 고찰, 맺음말, 참고문헌, 도판, 지표 및 발굴조사 현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계성고분군과 관련된 자료들도 함께 수록하였다.

2권은 발굴조사된 주요 유구와 유물사진을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특별논고를 통해 계성 5호분이 5세기 말~6세기 초의 창녕 양식 토기와 착장형 위세품을 부장하고, 무덤 구조는 11자형의 주곽과 부곽으로 이루어진 고분임을 설명하였다.

창녕박물관은 창녕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굴조사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019 가야학술제전 학술총서 발간



지난 2019년 국립김해박물관은 가야 문화 복원 연구를 위해 '2019 가야 학술 제전'을 개최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총 5가지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 “문자로 본 가야”를 시작으로 “삼한의 신앙과 의례”, “삼국시대 마주와 마갑의 연구 성과의 과제”, “가야사람 풍습 연구-편두”, “가야 직물 연구”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주제별 전공자의 최신 연구성과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국립김해박물관은 발표원고와 토론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2020년 8월 학술총서 5권을 발간하였다.

1권, 『삼한의 신앙과 의례』는 가야 선주민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하였다. 목차는 「삼한의 신앙과 의례」 연구의 동향과 과제, 「기원전 1세기~기원후 3세기 동북아시아 마구 매장의례」, 「고고자료로 본 마한 의례」, 「진·변한의 신앙과 의례」, 「변한지역 목관묘의 편년과 사회변동 양상」, 「매장의례로 본 변한지역 목관묘의 토기 부장 양상과 그 특징」, 「삼한시대 영남지역의 칠기」 순으로 구성되어 제사와 의례 관련 유물을 대상으로 삼한시대 사상과 관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2권, 『문자로 본 가야』는 가야사 기초자료 정리의 일환으로, 최근 까지 밝혀진 가야 문자자료의 연구 쟁점과 과제를 조명하고자 기획하였다. 목차는 「가야, 기록과 문자」, 「광개토왕비문 가야 관계 기사와 400년 고구려군의 남정」, 「합천 매안리비의 분석과 건립 배경」, 「대가야 '대왕'명 유개장경호의 문자 새로 보기」, 「하부사리리'명 (下部思利利'銘) 토기와 대가야」라는 주제로 구성하여 가야 관련 문자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3권, 『한국 고대의 말갯옷』은 가야 중장기병의 실체를 밝히고, 가야 유적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무기와 무구를 통해 당시 치열했던 가야인의 삶과 함께 가야의 기술문화를 밝히기 위해 기획하였다. 목차는 「삼국시대 마갑의 구조와 계보」, 「가야·신라 권역 출토 마주의 구조 분석과 의미」, 「4~6세기 중장기병 문화의 유행과 신라·가야의 대응 전략」, 「후나바루고분(船原古墳)의 마주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구성하여 동아시아 말갯옷 속에서 가야마구의 특징을 새롭게 재검토 하였다.

4권, 『가야사람 풍습 - 편두』는 김해 예안리유적에서 출토된 인골을 분석하여 가야의 편두 풍습을 논의하고자 기획하였다. 목차는 「김해 예안리고분군의 학사적 위치」, 「예안리유적 편두 인골 출토 고분의 성격 검토」, 「가야 고분과 순장인골」, 「형질분석으로 본 예안리 인골」, 「유라시아 편두의 분포와 의미」, 「예안리유적 출토 편두의 특징과 성격」라는 주제로 구성하여, 문헌기록과 고고학적 영상 및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김해 예안리 인골을 분석하였다.

5권, 『가야 직물』은 가야 직물의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복원을 위해 기획하였다. 목차는 「출토 가야직물의 고고학적 성격」, 「대외교류사적 관점에서 본 고대 Ikat 직물과 가야직물과의 관련성」, 「가야 고분군 출토 직물」, 「고대직물의 연구방법론」라는 주제로 구성하여, 가야 직물을 복원을 시도와 함께 가야 직물의 대외교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총서는 구매 가능하며, '2019년 가야 학술 제전' 토론 영상은 국립김해박물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국립김해박물관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GimhaeNationalMuseum>

창원 현동유적 특별전 개최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창원시립마산박물관은 국립김해박물관과 함께 10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마산 현동유적의 발굴성과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창원지역의 가야사 복원을 위한 특별전시 『가야의 또 다른 항구, 현동』이라는 주제로 공동 특별전을 개최한다.

현동유적

창원 현동유적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의 봉황산 남동쪽 능선사면과 그 건너편 구릉 일대에 위치한 유적이다. 이 일대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는 1989년 국립창원대학교 박물관의 조사를 시작으로 2009, 2010년 재단법인 동서문물연구원, 2017 ~ 2019년 재단법인 삼한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조사되었다.

창원 현동 봉황산 남동쪽 능선사면에서는 800여기의 4~5세기 가야덧널무덤과 500여기의 5~7세기 가야, 통일신라시대의 돌덧널무덤과 돌방무덤이 조사되었다. 후대 경지정리 등에 의해서 파괴된 지점 그리고 아직 조사되지 않은 지역 등을 종합해서 검토하였을 때, 이곳에는 약 1000여기의 대규모 묘역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맞은편 구역에서는 38기의 돌덧널무덤, 돌방무덤과 345기의 수혈, 제철유구, 폐기장, 고상식건물지 등 삼국시대 제철마을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조사되었다.



관람 안내
전시문의 055)225-7171
관람시간 화~일, AM 9:00 ~ 18: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이번 특별전은 (고)덕동만을 중심으로 해상교역을 주도했던 아라가야와 삼국시대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과의 교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이다. 해상교역의 주역이던 배를 형상화하여 만든 배모양토기, 서역과의 교류를 시사하는 낙타(오리)모양토기 등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교류의 장을 특별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유물 230여점을 전시하였다.

특히 2019년 재단법인 삼한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현동유적 출토유물을 일반인들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로, 도굴되지 않은 지배자의 무덤인 984호 나무덧널무덤을 출토 당시 그대로 재연해 놓아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창원시민들에게 가야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고취시키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출처 :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전시는 두 개의 테마로 이루어져있다.

I. 바다를 이용하다.

1600년 (고)덕동만을 교역의 중심지로 이용하던 가야인들의 무덤에서 출토된 배모양토기와 낙타(오리)모양 토기, 984호 나무덧널무덤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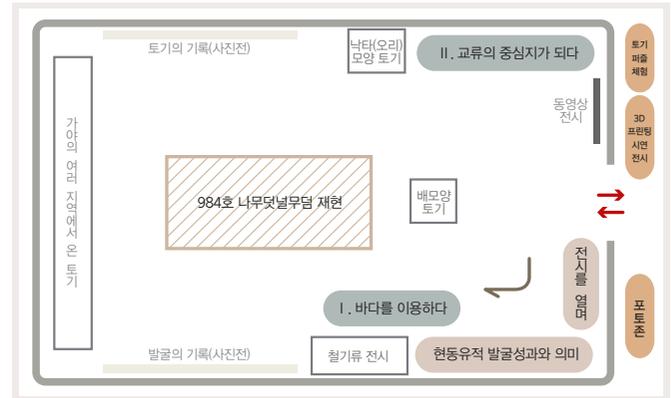
II. 교류의 중심지가 되다.

고령(대가야), 고성(소가야), 함안(아라가야), 창녕(비화가야), 김해(금관가야), 일본 등 다양한나라와 교역을 하였던 교류의 중심지로써의 현동유적을 재조명하는 구간이다.

전시실에는 마산 현동을 조사할 당시의 사진들과 토기의 세부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한 사진 등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도록 전시실 벽면에 사진을 전시하였다.

배모양토기 전시 모습 [출처 :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전시평면도



[출처 : 삼한문화재연구원]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



[출처 :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체험·교육

관람미션체험

전시기간 중 9:00~18:00 기획전시실

상형토기 입체퍼즐체험

전시기간 중 9:00~18:00 1층 로비

현동유적 전문가 특강

격주 수요일 14:00~16:00 영상실

| 특강 일자 | 강연자 | 주제 |
|----------|-----|-------------------|
| 10.14(수) | 임학중 | 우리는 가야를 말할 수 있을까? |
| 10.28(수) | 윤천수 | 현동유적의 발굴성과와 의미 |
| 11.11(수) | 최헌섭 | 가야의 또 다른 항구, 현동 |
| 11.25(수) | 이정근 | 현동유적 출토 가야토기 |

창동예술촌과 함께하는 공예체험

격주 토요일(10.24, 11.7, 11.21, 12.5) 13:00~16:00 야외광장

가야토기여행(재료비 10천원), 가족팔찌체험(재료비 10천원), 가야의 빛(재료비 15천원), 책갈피 만들기(재료비 5천원)



[출처 :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전시·행사

남치성 도예작가 초청전시회 “빛다”

전시기간 중 9:00~18:00 1층 로비

가야토기 3D프린팅 시연

전시기간 중 9:00~18:00 1층 로비

힐링음악회

10.24(토) 16:00~16:30 야외광장



고성 내산리 고분군

내산리 고분군은 적포만을 마주하고 있는 작은 구릉지를 배경으로 조성된 소가야의 고분군이다. 현재 남아있는 28기의 고분은 일제강점기에 도굴당하였고, 이후 1963년에 사적 120호로 지정되었으나 보존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적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굴이 진행되었다. 이에 창원문화재연구소(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1997년부터 연차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총 65기의 중소형 봉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발굴조사된 유구와 유물을 통해 고고학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성 내산리고분군 원경 [출처 : 강산문화재연구원]





고성 송학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송학동 고분군은 일명 무학산 또는 무기산이라고 불리는 구릉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소가야 지배자 집단의 중심고분군이다. 과거에는 제1고분군과 제2고분군으로 나뉘어 분포되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현재는 개간으로 인해 훼손되어 원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남아 있는 봉토분은 제일 큰 1호분을 중심에 두고 그 보다 작은 소형의 봉토분이 서쪽에 2기, 동쪽에 3기, 총 6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전체적인 고분의 축조 시기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송학동 고분군의 규모와 출토유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소가야 또는 고자국으로 불리던 정치체의 왕릉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남해안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통해 주변의 여러 제국들과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성 송학동 1호분 [출처 : 고성박물관]



고성박물관

고성박물관은 고성 송학동 고분군의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고성의 역사박물관이다. 고성박물관은 고성의 선사시대부터 고성 각지에서 발굴조사된 소가야의 유적과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시립박물관이다. 전시실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및 어린이 체험실, 역사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성의 유구한 역사에 관한 전반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관람시간

하절기(3월 ~ 10월) 09:00 ~ 18:00

동절기(11월 ~ 2월) 09:00 ~ 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휴관, 매년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고성송학동고분군 및 박물관 전경 [출처 : 고성박물관]



동외동 패총

고성 동외동 패총은 소가야의 중심지인 고성평야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성만의 해안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신석기시대~가야 초기의 생활유적이다. 동외동 패총은 1969년도부터 1995년까지 총 4번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출토유물은 토기, 뼈 화살촉, 청동 칼 손잡이 장식, 청동 넓은 창, 중국 한나라의 거울 조각, 철기, 사람의 뼈 등이 확인되었다. 주목할 만한 유물로는 4차 발굴조사 당시 구릉 정상부 제사유적에서 확인된 기원후 4세기에 만들어진 새무늬청동기가 있다. 고대 삼한지역에서는 새가 이승과 저승의 연결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하여 신성하게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점으로 보아 새무늬청동기는 중요한 의식에 사용되었거나, 의례를 주관하던 제사장의 특별의기로 추정된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물과 패총이 형성된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고성 동외동 패총은 고성지역문화 발전의 첫 단추이며, 남해안의 해상교류를 이해함은 물론 고성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업전반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성 만림산토성 전경 [출처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만림산 토성

만림산 토성은 고성만을 통해 내륙으로 진입하는 지점에 위치한 독립구릉과 유사한 지형에 위치한다. 이러한 지형조건은 김해 봉황동 유적, 김해 신문리 유적등 해상교역과 관련 있는 취락과 동일한 조건이다. 만림산 토성의 첫 조사는 1915년 쿠로이타 카츠미에 의해 처음 조사되었다. 조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유리원판사진만이 전해진다. 쿠로이타 카츠미는 만림산 토성을 삼국시대 토성으로 파악하였으나 2019년 재단법인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 결과 원삼국시대에 축조된 토성으로 밝혀졌다. 조사과정에서 삼국시대 토성에서 나타나는 특징(토제, 토낭, 블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릉 정상부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입지, 평면형태, 출토 유물을 통해 원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만림산 토성은 시도기념물 제26호인 동외동 패총과 동일한 시기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동외동 패총과 함께 고성지역의 초기 역사를 규명 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 판단된다.



고성 동외동유적 전경 [출처 : 고성박물관]

가야유적 보존관리(사적지정) 현황



사적
27 점



시도기념물
37 점

| 순번 | 종목 | 지정번호 | 문화재명 | 지정일 | 분야 | 소재시도 | 시군구 |
|----|-------|-------|-----------------|------------|--------|-------|-----|
| 1 | 사적 | 제2호 | 김해 봉황동 유적 | 1963-01-21 | 패총 | 경상남도 | 김해시 |
| 2 | 사적 | 제64호 | 창녕 화왕산성 | 1963-01-21 | 성지(성곽) | 경상남도 | 창녕군 |
| 3 | 사적 | 제73호 | 김해 수로왕릉 | 1963-01-21 | 능 | 경상남도 | 김해시 |
| 4 | 사적 | 제74호 | 김해 수로왕비릉 | 1963-01-21 | 능 | 경상남도 | 김해시 |
| 5 | 사적 | 제95호 | 양산 중부동 고분군 | 1963-01-21 | 고분 | 경상남도 | 양산시 |
| 6 | 사적 | 제119호 | 고성 송학동 고분군 | 1963-01-21 | 고분 | 경상남도 | 고성군 |
| 7 | 사적 | 제120호 | 고성 내산리 고분군 | 1963-01-21 | 고분 | 경상남도 | 고성군 |
| 8 | 사적 | 제164호 | 진주 평거동 고분군 | 1968-12-19 | 고분 | 경상남도 | 진주시 |
| 9 | 사적 | 제240호 | 창원 성산 패총 | 1974-11-02 | 패총 | 경상남도 | 창원시 |
| 10 | 사적 | 제261호 | 김해 예안리 고분군 | 1978-06-23 | 고분 | 경상남도 | 김해시 |
| 11 | 사적 | 제326호 | 합천 옥전 고분군 | 1988-07-28 | 고분 | 경상남도 | 합천군 |
| 12 | 사적 | 제327호 | 창원 다호리 고분군 | 1988-09-03 | 고분 | 경상남도 | 창원시 |
| 13 | 사적 | 제341호 | 김해 대성동 고분군 | 1991-01-09 | 고분 | 경상남도 | 김해시 |
| 14 | 사적 | 제429호 | 김해 구지봉 | 2001-03-07 | 기타유적지 | 경상남도 | 김해시 |
| 15 | 사적 | 제454호 | 김해 양동리 고분군 | 2004-07-24 | 고분 | 경상남도 | 김해시 |
| 16 | 사적 | 제514호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 2011-07-28 | 고분 | 경상남도 | 창녕군 |
| 17 | 사적 | 제515호 | 함안 말이산 고분군 | 2011-07-28 | 고분 | 경상남도 | 함안군 |
| 18 | 사적 | 제547호 | 창녕 계성 고분군 | 2019-02-26 | 고분 | 경상남도 | 창녕군 |
| 19 | 사적 | 제554호 | 함안 가야리 유적 | 2019-10-21 | 기타유적지 | 경상남도 | 함안군 |
| 20 | 사적 | 제61호 | 고령 주산성 | 1963-01-21 | 성지(성곽) | 경상북도 | 고령군 |
| 21 | 사적 | 제79호 | 고령 지산동 고분군 | 1963-01-21 | 고분 | 경상북도 | 고령군 |
| 22 | 사적 | 제86호 | 성주 성산동 고분군 | 1963-01-21 | 고분 | 경상북도 | 성주군 |
| 23 | 사적 | 제165호 |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 1968-12-19 | 고분 | 경상북도 | 고령군 |
| 24 | 사적 | 제542호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 2018-03-28 | 고분 | 전라북도 | 남원시 |
| 25 | 사적 | 제552호 | 장수 동촌리 고분군 | 2019-10-01 | 고분 | 전라북도 | 장수군 |
| 26 | 사적 | 제273호 | 부산 북천동 고분군 | 1981-06-09 | 고분 | 부산광역시 | 동래구 |
| 27 | 사적 | 제539호 | 부산 연산동 고분군 | 2017-06-30 | 고분 | 부산광역시 | 연제구 |
| 28 | 시도기념물 | 제1호 | 진주 옥봉 고분군 | 1974-02-16 | 고분 | 경상남도 | 진주시 |
| 29 | 시도기념물 | 제7호 | 산청 생초 고분군 | 1974-02-16 | 고분 | 경상남도 | 산청군 |

| 순번 | 종목 | 지정번호 | 문화재명 | 지정일 | 분야 | 소재시도 | 시군구 |
|----|-------|-------|--------------|------------|--------|------|-----|
| 30 | 시도기념물 | 제8호 | 합천 삼가 고분군 | 1974-02-16 | 고분 | 경상남도 | 합천군 |
| 31 | 시도기념물 | 제27호 | 통영 옥지도 패총 | 1974-12-28 | 패총 | 경상남도 | 통영시 |
| 32 | 시도기념물 | 제44호 | 창원 내동 패총 | 1979-05-02 | 패총 | 경상남도 | 창원시 |
| 33 | 시도기념물 | 제45호 | 김해 유 하패총 | 1979-05-07 | 패총 | 경상남도 | 김해시 |
| 34 | 시도기념물 | 제51호 | 거창개봉 고분 | 1980-12-26 | 고분 | 경상남도 | 거창군 |
| 35 | 시도기념물 | 제52호 | 창원 마산 이산성지 | 1981-12-21 | 성지(성곽) | 경상남도 | 창원시 |
| 36 | 시도기념물 | 제64호 | 의령 벽화산성지 | 1983-08-06 | 성지(성곽) | 경상남도 | 의령군 |
| 37 | 시도기념물 | 제67호 | 합천 미송산성 | 1983-12-20 | 성지(성곽) | 경상남도 | 합천군 |
| 38 | 시도기념물 | 제91호 | 김해 양동산성 | 1988-12-23 | 성지(성곽) | 경상남도 | 김해시 |
| 39 | 시도기념물 | 제98호 | 김해 칠산동 고분군 | 1990-12-20 | 고분 | 경상남도 | 김해시 |
| 40 | 시도기념물 | 제100호 | 의령 죽전리 고분군 | 1990-12-20 | 고분 | 경상남도 | 의령군 |
| 41 | 시도기념물 | 제101호 | 의령 호미산성 | 1990-12-20 | 성지(성곽) | 경상남도 | 의령군 |
| 42 | 시도기념물 | 제126호 | 창원 가음정동 고분군 | 1993-12-27 | 고분 | 경상남도 | 창원시 |
| 43 | 시도기념물 | 제133호 | 합천 대야성 | 1993-12-07 | 성지(성곽) | 경상남도 | 합천군 |
| 44 | 시도기념물 | 제150호 | 김해 마현산성 | 1996-03-11 | 성지(성곽) | 경상남도 | 김해시 |
| 45 | 시도기념물 | 제161호 | 거제 아주동 고분군 | 1997-01-30 | 고분 | 경상남도 | 거제시 |
| 46 | 시도기념물 | 제168호 | 창녕 영산 고분군 | 1997-12-31 | 고분 | 경상남도 | 창녕군 |
| 47 | 시도기념물 | 제171호 | 함양 백천리 고분군 | 1997-12-31 | 고분 | 경상남도 | 함양군 |
| 48 | 시도기념물 | 제177호 | 사천 금성리 토성지 | 1998-01-15 | 성지(성곽) | 경상남도 | 사천시 |
| 49 | 시도기념물 | 제189호 | 의령 중동리 고분군 | 1997-12-31 | 고분 | 경상남도 | 의령군 |
| 50 | 시도기념물 | 제201호 | 창원 남산유적 | 1997-12-31 | 유지 | 경상남도 | 창원시 |
| 51 | 시도기념물 | 제222호 | 의령 운곡리 고분군 | 1999-08-06 | 고분 | 경상남도 | 의령군 |
| 52 | 시도기념물 | 제226호 | 함안 남문외 고분군 | 2000-08-31 | 고분 | 경상남도 | 함안군 |
| 53 | 시도기념물 | 제231호 | 의령 미타산성 | 2001-02-22 | 성지(성곽) | 경상남도 | 의령군 |
| 54 | 시도기념물 | 제238호 | 합천 전초팔성 | 2001-12-20 | 성지(성곽) | 경상남도 | 합천군 |
| 55 | 시도기념물 | 제263호 | 합천 백마산성 | 2006-01-12 | 성지(성곽) | 경상남도 | 합천군 |
| 56 | 시도기념물 | 제290호 | 김해 원지리 고분군 | 2018-05-03 | 고분 | 경상남도 | 김해시 |
| 57 | 시도기념물 | 제293호 | 합천 성산토성 | 2018-10-04 | 성지(성곽) | 경상남도 | 합천군 |
| 58 | 시도기념물 | 제294호 | 거제 농소리 고분 | 2018-10-18 | 고분 | 경상남도 | 거제시 |
| 59 | 시도기념물 | 제298호 | 거제 방하리 고분군 | 2019-12-26 | 고분 | 경상남도 | 거제시 |
| 60 | 시도기념물 | 제26호 | 전고령 가야왕릉 | 1979-12-18 | 묘 | 경상북도 | 상주시 |
| 61 | 시도기념물 | 제105호 | 독용산성 | 1995-01-14 | 성지(성곽) | 경상북도 | 성주군 |
| 62 | 시도기념물 | 제143호 | 가야산 산성 | 2003-05-22 | 성지(성곽) | 경상북도 | 성주군 |
| 63 | 시도기념물 | 제128호 | 장수 삼봉리 가야고분군 | 2013-11-15 | 고분 | 전라북도 | 장수군 |
| 64 | 시도기념물 | 제138호 | 남원 월산리 고분군 | 2018-06-15 | 고분 | 전라북도 | 남원시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사진관

가야문화의 발자취를 남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가야유적 관련 사진들입니다.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안 가야리유적 발굴조사팀

예로부터 아라가야의 왕성지로 불리어졌던 함안 가야리 일대를 조사하고 있으며 2018년 5월부터 연차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주요 발굴 성과로는 토성벽을 쌓을 때 이용한 축조구조물과 성을 견고히 쌓기 위해 이용된 관측공법 등 성벽축조 공정을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성을 방어하기 위해 세운 목책과 성벽과 관련된 시설 등을 확인하였다.



김해 봉황동유적 발굴조사팀

금관가야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금관가야 사람들이 봉황동 일대에 터전을 잡기 위해 땅을 조성했던 방법들과 유적의 조성 연대 파악, 금관가야 사람들의 의례행위가 이루어졌던 장소, 수공업과 관련된 장소 등 금관가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흔적을 조사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함안 우거리유적 발굴조사팀

가야 수공업체제와 생산품의 유통경로 체계를 규명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 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발굴성과는 가마 1기와 폐기장 등 다양한 시설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발굴조사된 자료들을 선별하여 정리 중에 있다.



보존과학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의 손상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 보존처리 및 복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과 목기의 보존처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가야문화권에서 출토된 다양한 재질의 유물을 대상으로 보존처리와 복원 업무 및 분석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1
- 2
- 3
- 4

- 1. 목간적외선촬영
- 2. X-ray촬영
- 3. 목재유물보존처리
- 4. 금속유물보존처리

창녕 교동 고분군 발굴조사팀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비화가야의 고분문화를 규명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주요 조사 성과로 미도굴된 63호분의 발굴조사와 대형관석으로 만들어진 39호분을 통해 비화가야에서만 보여지는 고분축조 방식의 독자성을 확인하였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II군 63호분 돌덧널 내 피장자 꾸밈유물 노출

